

시내산은 어디인가?

성서지리학적 접근

정 연 호 (University of the Holy Land 교수)

1. 들어가며

그간 시내 산의 위치에 관한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논란은 크게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다는 주장과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한국에서도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의 라오즈 산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 출판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그 주장에 설득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은 걸로 알지만,² 시내 산의 위치에 관해 성서지리적인 측면에서 다룬 논문은 없는 걸로 안다.

본 논문에서는 저간의 시내 산의 소재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의 배경이나 연구물에 대한 조망은 생략하고 오직 성서지리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 볼 것이다.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시내 산이 시내 반도에 있는 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홍해를 건넌 후의 상황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 관찰 지역은 수르 광야이다. 왜냐하면 출 15:22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라는 진술에서 홍해를 건너 이후 수르 광야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르 광야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살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신 1:2)의 “열 하룻길”이라는 거리 때문에 신 광야와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

¹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주장들 중에 최근의 주목할 만한 학자는 저명한 크로스(F. M. Cross)다. 그는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허셸 쉹크(Hershel Shanks)와의 대담에서 아라비아 북서쪽이 고대 미디안이며 거기에 시내 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hanks H., “Where Is Mount Sinai?: The Case for Har Karkom and the Case for Saudi Arabia,” *Biblic. Archaeol. Rev.* 40, no. 2 (2014): 41; Allen Kerkeslager, “Mt. Sinai in Arabia?,” *Biblic. Rev.* 16, no. 2 (2006): 32–39, 52.

² 강후구, “시내산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고학적 고찰: 떨기나무에 대한 소고,” *성서마당*, no. 가을호 (2009): 77–88; 이일호, “소위 시내산 위치 논쟁에 대하여,” *성경과 고고학*, no. 여름호 (2011): 83–109.

스 바네아까지 아라바광야 동편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가 아라바 동편에 있느냐 서편에 있느냐는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는 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여정을 살펴 볼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강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 왜 가데스 바네아가 아라바 서쪽, 네게브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아다람 길”과 세일산의 위치 연구는 가데스 바네아 위치와 이후 여정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르광야의 위치

2.1. 수르의 개념

수르 광야의 위치는 시내산이 시내광야에 있는지 미디안 광야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점이다. 이는 또한 성서지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암 숲 ַיַּם סוּף)가 어디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출 15:22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이다.

그런데, 시내산의 위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으로서 출 15:22의 수르 광야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논쟁은 사실 김승학의 『떨기나무』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성질의 것이다.³ 왜냐하면, 김승학이 자신의 입으로 '수르 광야'는 애굽 앞, 즉 애굽의 동쪽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실토해 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김승학은 "술은 애굽 땅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⁴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곧 수르 광야가 시내 반도 북서쪽, 즉 애굽의 델타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³ 김승학, 『떨기나무: 미디안 땅의 시내산을 찾아, 그 7년의 기록』 (서울: 두란노, 2007).

⁴ Ibid., 301. 한글성경(개역개정)의 “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슈르”(שוּר)이며, 곧 한글의 “수르”와 같은 표현이다. 한글성경(개역개정)에서 “술”과 “수르”로 달리 표기된 것은 복수 번역자들의 번역을 통일시키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지도 1. 수르 광야>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술'이 실상 '수르'요, 수르 광야는 '수르'라는 지명에 따른 광야의 이름일 뿐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김승학이 '수르 광야'라는 이름의 기원에 관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는 민 25:15을 살펴보자.

라오즈 산을 시내산으로 주장하는 김승학은 수르 광야가 성경의 미디안 광야,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찾는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딸이었더라." 김승학은 수르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르를 미디안 광야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아라비아 홍해변에 수르라는 족장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수르 광야라 하며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

그런데, 문제는 민 25:15의 '수르'와 출 15:22의 '수르'의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⁵ Ibid., 404.

전자는 우리말 '스'에 대하여 '짜데(צ)'로 표기되는 데 비하여, 후자는 '쉬'(ש)으로 표기된다. 즉 전자의 히브리어는 '쭈르'(צור)인데 반해, 후자의 히브리어는 '슈르'(שור)이다. 김승학은 히브리어로 전연 다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양자 모두 '수르'로 번역되고 있어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들어간 광야, '슈르'(שור) 광야 곧 우리말 성경의 '수르 광야'는 민 25:15과는 전연 관계가 없다.

'수르'('=슈르' שור)는 우리말(개역개정) 구약성경에서 '술 길'(창 16:7), '수르 광야' 등의 표현과 함께 7번 언급이 되고 있다. 성경의 초기 아람어 번역에서 '수르'('=슈르' שור)는 담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는 '하그라'(חגרא)로 번역이 되었다. '수르'('=슈르' שור)라는 단어는 사실 아람어 '슈르'(שור) - '담'을 의미 - 와 동의어이며 성경의 시적인 구절에서 두 번 나타나고 있다(창 49:22; 삼하 22:30 = 시 18:29). '담'을 의미하는 '슈르'(שור)가 델타 동쪽, 곧 애굽의 동쪽을 방어하는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시누헤 이야기'에서 찾아진다. 주전 약 1950년경으로 돌려지는 시누헤(Sinuhe) 이야기는 아멘-엠-헛트 1세(Amen-em-het I - 주전 약 1971) 때의 애굽의 관리로서 새로운 파라오가 권력 장악을 꾀하고자 할 때,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지역을 여행하고 노년에 애굽에 돌아와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이다. 그가 애굽 밖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온다⁶:

아시아인들을 막고 사막을 건너는 자들을 분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치자의 담.
나는 담 위의 감시자가 나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덤불 숲에 쭈그리고 숨었다

그래서 시몬스(J. Simons)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수르'('=슈르' שור)는 애굽이 시내만도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애굽의 동부 델타 지역에 만든 일련의 요새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⁷ 이러한 견해에 대해 로마의 국경선에 유추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르는 지역 이름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⁸ 요새이든 지역 이름이든 분명한 것은 적어도 '수르

⁶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9 이하.

⁷ Jan Jozef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A Concise Commentary in XXXII Chapters* (Leiden: Brill, 1959), 217, 251, 317-338;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142; Ora Lipschitz, *Sinai* (Tel Aviv: Simor, 1978), 50-51, 155-157.

⁸ “수르”(=슈르)가 “담”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새화된 방어선의 개념이 아니라 브솔 시내(나할 브솔) 남방의 지역 이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Nadav Na’aman, “The Shihor of Egypt and

광야'는 애굽의 동부 델타 지역, 즉 시내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애굽 앞 숲(=슈르)"(창 25:18; 삼상 15:7)이란 표현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된다.

2.2. 수르광야와 아말렉

김승학은 『떨기나무』에서 아말렉이 아라비아 북부에 광범위하게 걸쳐 살았기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곳이 미디안 광야였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성경은 아말렉이 또한 네게브 광야와 수르 광야에 걸쳐 거주하며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르비딤이 속한 신(צִן שׁוּר) 광야는 북쪽의 수르(=슈르) 광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말렉이 주된 거점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수르(=슈르) 광야와 네게브였음을 밝힌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곳이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시내 광야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아말렉인은 원래 장막에 거하는 유목민(tent-dwellers)으로서 때로 정착민들을 공격하여 약탈을 행하기도 하는 일종의 베두윈과 같은 족속이었다. 시내 반도 북동쪽의 네게브¹¹와 북서쪽의 수르(=슈르) 광야를 주된 거점으로 삼고 사방으로 이동하며 약탈하는 족속이었기에 자연히 수르(=슈르) 광야와 연결된 신(צִן שׁוּר) 광야 역시 그들의 활동반경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말렉 족속이 네게브와 수르(=슈르) 광야를 주 거점으로 삼고 사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이들을 공격한 성경의 진술에서 확인이 된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먼저 행한 일은 아말렉과 함께 거주하던 겐 족속을 먼저 피신 시킨 일이었다. 겐 족속은 미디안 족 출신으로서 유다 남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던 족속이었다. 즉 삼상 15:6은 사울 당시에 아말렉이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7절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슈르)"¹²까지 공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월라의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¹³ 일부 학자들이¹⁴ 주장하는 것처럼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Shur That Is before Egypt," *Tel Aviv* 1980, no. 1-2 (1980): 101를 참고하라.

⁹ 김승학, *떨기나무*, 405.

¹⁰ 무엇보다 먼저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신(צִן שׁוּר) 광야의 신(צִן שׁוּר)의 어원 자체가 현재 시내 반도의 표기인 '미드바르 צִן(שׁוּר 727?)'의 '신(צִן)'과 동일하며, 신 광야는 지명 그 자체가 오늘날 시내 반도에 속해 있음을 말해준다.

¹¹ "아말렉인은 남방 땅" 곧 네게브에 거주했다는 민 13:29의 진술을 생각해 보라.

¹² 이 표현은 이스마엘 자손들을 다루는 창 25:18에서도 나오는데, 에프알(I. Ephal)은 삼상 15장의 이 표현은 아말렉을 이스마엘 족속으로 간주 한데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I. Ephal, "Ishmael' and 'Arab(s)': A Transformation of Ethnological Terms," *J. East. Stud.* 35, no. 4 (1976): 226.

¹³ Na'aman, "The Shihor of Egypt and Shur That Is before Egypt," 101. 나아만에 의하면 하월라의

본다. 왜냐하면 만일 하일라가 아라비아 북쪽에 있었다면 사울의 군대가 이 지역에 살던 에돔인들과 충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 2 아말렉의 활동 무대>

따라서 "하일라에서 수르까지"라는 이 표현은 대강 팔레스틴 땅의 동부 네게브 지역에서 애굽의 델타 동쪽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아말렉의 활동 범위를 나타내 준다고 볼 것이다.

아말렉이 수르 광야를 거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다윗이 시글락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 인근의 유목 족속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아말렉 족속이 언급되는 것

위치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리적 상황은 동부 네게브로 볼 수 있다.

¹⁴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With an Introduction on Hebrew Palaeography and the Ancient Versions and Facsimiles of Inscriptions and Maps* (Oxford: Clarendon, 1913), 123; F. V. Winnet, "The Arabian Genealogies in the Book of Genesis," in *Translating &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Herbert Gordon May*. (ed. Herbert G. May, Harry Thomas Frank, and W. L. Reed; Nashville: Abingdon, 1970), 175-196; Hans Joachim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3), 285.

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삼상 27:8). 아말렉 인들은 이미 시누헤 이야기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이들은 "옛적부터 술(=수르, 슈르)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다시 말해서 수르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던 아시아 유목민들이었다. 다윗이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추적할 때, 아말렉의 본거지로 안내한 자가 아말렉으로부터 버림 받은 애굽 출신 종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아말렉이 수르 광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삼상 30:13). 애굽의 종은 아말렉이 애굽의 델타 지역을 침공해서 사로잡아 온 종이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본문의 정황을 볼 때, 버려진 애굽의 종이 있던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르 광야의 어느 한 곳이 아말렉의 본거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2.3. 수르광야와 홍해

김승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에이바 해변에서 홍해를 거쳐 미디안 땅으로...건너온 것이 사실이라면" 미디안에 수르 광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¹⁵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성경적 근거를 민 25:15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민 25장의 '수르'와 수르 광야의 '수르'는 전연 단연 두 단어임을 알 때, 민 25:15은 김승학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누에이바 홍해 횡단 주장의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라고 주장하는 김승학 등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 배경에는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보는 입장에 대한 신앙적 불편이 담겨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홍해'에 대한 성경적 진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홍해를 히브리어로 '얌 숲'(יַם סוּף)이라고 부른다. 문자적으로 '갈대 바다'란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는 성경에서 숨김없이 '갈대 바다'라고 말한다(출 14:22, 15:4).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를 건너게 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출 13:17-18에서 찾아진다.¹⁶

¹⁵ 김승학, 『떨기나무』, 117.

¹⁶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גִּבְרֹתַי)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출 13:17-18)



<지도 3 출애굽과 홍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은 '블레셋 길'이다. 이 길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해안도로(via Maris)로서 안보와 통상의 관점에서 애굽의 핵심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하여 "홍해의 광야 길"('데렉 미드바르 암 숲 $\text{דֶּרֶךְ הַמִּדְבָּר אֲמִלְכָם}$), 즉 '갈대 바다'의 광야 길로 방향을 트셨다.¹⁷ "홍해의 광야 길"이란 표현은 수에즈 만이 있는 홍해를 끼고 가는 광야 길을 의미한다.¹⁸ 따라서 블레셋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갈대 바다'의 광야 길을 향할 때, 그 길은 바로 전통적으로 보아 온 출애굽 길의 방향과 일치한다.¹⁹

¹⁷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에서 '돌려'에 대한 히브리어 '야쎌브'(גָּזַז)의 원형 '싸바브'(בָּבַז)는 '돌다, 순회하다'의 의미를 지니며(신 2:1; 삼상 7:16 참조), 최소한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을 의미한다.

¹⁸ 성경에 홍해와는 관련된 길이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수에즈 만을 안고 있는 홍해 길과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의 길이다. 전자는 출 13:18에 언급된 "홍해의 광야 길"이며, 후자는 민수기(14:25, 21:4)와 신명기(1:40, 2:1)에서 언급되고 있는 "홍해 길"이다. 그래서 전자는 홍해를 끼고 가는 광야 길이라면, 후자는 홍해를 향해 가는 아라바 광야 길을 의미한다.

¹⁹ 라오즈 산을 시내 산으로 보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보고 있다. 김승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의 중북부를 관통하여

2.4 "갈대 바다"와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광야 길"을 가다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갈대 바다'를 건넜다. 그런데, '갈대 바다'는 갈대가 자라기에 붙여진 이름이므로 갈대는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는 소위 오늘날 수에즈 만이 있는 '홍해'²⁰나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²¹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²² 이런 주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갈대 바다'는 홍해와 지중해 사이의 호수들 중에서 '비터 레이크'로 간주되어 왔다. 여기서 전통적인 보수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겨우 '갈대 바다'인가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호프마이어에 따르면 "할로파이트(Halophyte)로 불리는 갈대와 식물은 염분이 있는 물에서 번성한다"고 한다.²³ 또한 홍해와 북쪽의 비터 레이크(Bitter Lake)는 고대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질학적, 해양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고대의 수에즈 만은 오늘날보다 훨씬 북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고대의 비터 레이크도 오늘날보다 훨씬 남쪽까지 뻗어 있어, 그 둘이 제2천년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갈대 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얄 숲이 홍해와 연결된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33:8-10, 그리고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얄 숲은 시내 반도와 이집트의 국경에 위치한 일련의 호수들(특히, 비터 레이크)과 홍해의 북단 지역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²⁴

따라서 호프마이어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는 '얄 숲' 문자 그대로 '갈대 바다'인 동시에 수에즈 만과 연결된 '얄 숲' 즉 홍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누에이바 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데, 이는 출 13:8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 상에 뜨는 Steve Rudd (<http://www.bible.ca/archeology/maps-bible-archeology-exodus-route.jpg>)가 그린 지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광야 길", 즉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를 따라 가다가 시내 반도 최남단 북동쪽에 위치한 '티란 해협'(straits of Tiran)을 건넌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스티브 루드가 최소한 출 13:8에 대한 해석에서 있어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하였음을 반증한다.

²⁰ 민 33:10-11의 홍해는 수에즈 만과 관련된 홍해이다.

²¹ 왕상 9:26, 렘 49:21의 홍해는 아카바 만과 관련된 홍해이다.

²² 프로반 이안,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trans. 김구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68.

²³ Ibid.

²⁴ James K. Hoffmeier,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97), 209. 윗글 269에서 재인용.

3.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기착한 지점 중 가장 중요한 지점에 해당한다.²⁵ 무엇보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지도 4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²⁵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 북쪽에 위치한 가장 큰 오아시스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방랑시절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 영역 내에 모세와 아론 가족의 매장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었고(민 20:1), 여기서 멀지 않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민 20:22-29, 33, 37-39). 성경 전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음을 강조하고 있다(신 1:46). 이와 관련하여 가데스는 가나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든 시도의 전진 기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랏 왕과 싸우기 위해 나갔으며(민 21:1-3, 33:37이하), 여기에서 그들이 요단 동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다(민 20:16).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²⁶에서 "열 하루 길"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하는 신 1:2의 진술²⁷에 근거할 때, 예상되는 시내산에서 거리상으로 약 220-330km²⁸ 정도 떨어진 곳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후보지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시내 반도의 무사산을 시내산으로 보는 입장은 가데스 바네아를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Tell Ain el-Qudeirat) 혹은 '아인 케데이스'(Ain Qedeis)와 동일시하여 왔다.²⁹ '아인 케데이스'는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자를 넓은 범위의 가데스 바네아로 보기도 한다. 아인 케데이스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트럼불(Trumbull)이며,³⁰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아하로니(Y. Aharoni)이다.³¹ 아하로니 이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라오즈 산을 비롯하여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산들을 시내산으로 주장하는 측은 '페트라' 혹은 '메다인 살리'(Medain Salih)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다.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기원은 유세비우스의 오노마스티콘(*Onomasticon*)이며, 처음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페트

²⁶ 대부분의 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이 동일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간주한다. Graham I. Davies, "The Significance of Deuteronomy 1. 2 for the Location of Mount Horeb," *Palest. Explor. Q.* 111, no. 2 (1979): 89. 참조하라. 출 19-34장에서 하나님의 산에 대해 한결같이 "시내 산"으로 호칭하다가 33:6에서만 "호렙산"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는 호렙산이 시내 산의 별칭임을 보여 주고 있다.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에 의하면 J자료와 P자료에서는 시내 산으로, E와 D자료에서는 호렙산으로 호칭된다.

²⁷ 신 1:2의 "열 하루 길"을 시간개념으로 볼 것이냐, 거리 개념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 가능성이 있지만, 문맥상 거리 개념이다. 즉 하루에 일정한 속도로 갈 경우 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트럼불(H. C. Trumbull)에 의하면 19세기말까지도 베두윈들은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거리 측정 단위로 사용하였다. H. Clay Trumbull, *Kadesh-Barnea: Its Importance and Probable Site, with the Story of a Hunt for It: Including Studies of the Route of the Exodus and the Southern Boundary of the Holy Land* (London: Hodder & Stoughton, 1884), 71-74.

²⁸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여행자의 상태와 거리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정개념이다. 신 1:2의 거리는 보통 대상(caravan)의 속도에 따른 거리로 보고 있다(Davies, 윗글, 96). 보통 낙타 대상은 시간 당 3.6km, 당나귀 대상은 4.4km 이동한다(윗글, 73). 정상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7~8시간 이동한다고 볼 때, 평균 20~30km 이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열 하루 길'은 대략 220~330 km 될 것이다.

²⁹ "아인 케데이스"는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 남방 8km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자를 넓은 범위의 가데스 바네아로 보기도 한다. 아하로니는 "텔 아인 엘-쿠테이라트"를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시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80.

³⁰ Trumbull, *Kadesh-Barnea*, 272-290.

³¹ Benno. Rothenberg, *God's Wilderness. Discoveries in Sinai* (London: Thames & Hudson, 1965), 121-141;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80.

라 주변에 있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친 학자는 무실(A. Musil)이다.³² 인터넷에서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각각 라오즈 산과 페트라로 간주하고 제작한 지도 제작자(Steve Rudd)의 홈페이지(www.bible.ca)와 도서관을 열람했으나, 루드(Steve Rudd)의 가데스 바네아 관련 논문은 없었다. 가데스 바네아와 관련하여 특이한 주장을 펼치는 유대인 학자는 바르 데로마(H. Bar-Deroma)이다. 그는 히브리어로 된 소책자³³에서 시내산을 아라비아 반도의 '타북' 가까이에 위치한 '휴화산'인 '알 바라드 산' 내지 화강암 산인 '제벨 하라브'(ג'בל חרב)와 동일시한다. 영어 논문³⁴에서 그는 아카바에서 남동쪽으로 450km 떨어져 있고, 메디나로 가는 도로상에 위치한 '메다인 살리'(Medain Salih)를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시하고 있다.³⁵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요단 서편(Cis-Jordan) 혹은 동편(Trans-Jordan)에 있는지는 성경의 진술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경유지(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 세일산)와 바란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작업에 앞서서 행해야 할 작업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가 동일 장소를 나타내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여야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착하는 지점으로서의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1.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

민 13:26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이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 가데스는 수 14:6-7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불려지고 있다. 즉 민 13:26과 수 14:6-7을 같이 읽을 때, '가데스'라는 지명과 '바네아'라는 별칭이 붙은 '가데스 바네아'는 동일한 지명이 분명하다. 문제는 민 20:1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가데스'는 '신('צן) 광야'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민 13:26에서 바란 광야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는 '가데스 바네아'와 20:1에서 '신('צן) 광야'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는 '가데스'는 다른 것인가? 가데스 바네아를 텔 아인 엘-쿠데이라트로 보든, 페트라로 보든 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양자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데로마는 양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가데스 바네아를 메다인 살리에서, 르

³² Alois Musil, *The Northern Heḡāz: A Topographical Itinerary*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26), 262-265.

³³ H. Bar-Deroma, *זוהי היא שנין הרי* 이것이 시내산이다 (Jerusalem, 1967), 1-53.

³⁴ H. Bar-Deroma, "Kadesh-Barne'a," *Palest. Explor. Q.* 96, no. 2 (1964): 101-134.

³⁵ 그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와 신('צן) 광야의 가데스를 구별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메다인 살리를 가데스 바네아와, 페트라를 가데스(트리바 물)와 동일시하고 있다.

리바 물의 가데스를 페트라에서 찾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와 가데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유대와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 34장과 수 15장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신광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민 34:4)

2 또 그들(유다지파)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3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신광야)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면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수 15:2-3)

이상의 성경 진술에 의하면, '신 광야'를 언급한 직후 곧이 바란 광야를 언급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 광야와 바란 광야가 마주치는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란 광야와 신 광야가 자로 재듯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광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는 경우에 따라, '바란 광야' 혹은 '신 광야'에 속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 13:26의 '가데스'와 20:1의 '가데스'는 동일 지명이며, 후자의 가데스에서 일어난 '므리바 물' 사건과 관련하여 주전 6세기의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의 남쪽 경계와 관련하여 겔 47:19³⁶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므리봇 가데스 물'이라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의 시대적 배경보다 후대이지만, 유대 남부의 경계와 관련된 전승에 익숙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염해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애굽 시내를 거쳐 대해로 이동하는 유대 남부의 경계선을 언급할 때, '가데스 바네아'를 '므리봇의 가데스 물'³⁷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3.2. 가나안의 경계

가데스 바네아를 현대의 페트라와 동일시하는 입장은 무엇보다 가나안과 유대의 남쪽 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민 34:3-5; 수 15:1-3; 겔 47:19 참조)과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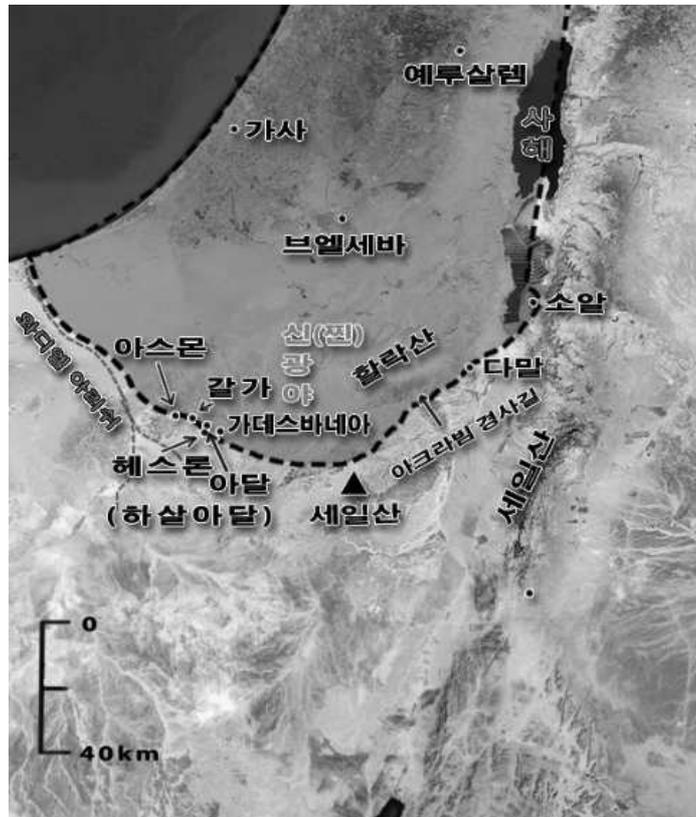
³⁶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봇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겔 47:19)

³⁷ 히브리어로는 '메이 므리봇 가데스'(מַי מְרִיבוֹת גַּדְסָא)로 되어 있어서, '므리봇의 물 곧 가데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 3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 4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 5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민 34:3-5)

- 1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 2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 3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 4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수 15:1-4)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브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겔 47:19)



<지도 5 가나안 남쪽 경계>

민 34:3-5과 수 15:1³⁸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가나안과 유다의 남쪽 끝이 신('צֶן' צ) 광야라는 진술이다. 그리고 경계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지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각 지점들을 동쪽에서 서쪽 순으로 이동하며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쪽의 경계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 47장 19절이다.³⁹ 즉 다말 → 프리봇 가데스 물 → 애굽 시내 → 대해 순으로 동쪽 다말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순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말이 사해 남단으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⁴⁰ 그렇다면, 겔 47:19에 따라 프리봇 가데스 물은 다말보다

³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시내까지 민수기에서는 2개의 지점(하살아달, 아스몬)을 언급하는데 반해, 여호수아에서는 4개의 지점을 언급하고 있다(헤스론, 아달, 갈가, 아스몬).

³⁹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말의 저작이므로 유다 지파의 역사적인 남쪽 경계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땅과 지명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⁴⁰ 다말(Tamar)은 북쪽 아라바에서 가장 중요한 기착지로서 명백하게 오늘날의 “아인 후스브”와 동일시된다.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70. 사해 남서 방향 32km에 위치해 있다.

더 서쪽에 위치하게 된다. 트리봇 가데스 물은 민 20:1-13의 가데스의 트리바 물 사건에서 나온 지명이며,⁴¹ 가데스는 신('צן' מַצְ) 광야에 위치해 있다(민 20:1). 따라서 민 34:3-5과 수 15:13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צן' מַצְ)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는 아라바 동쪽에 위치할 수 없다. 요단(=요단 강) 끝과 염해(=Dead Sea)가 동쪽 경계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수 15:5; 민 34:10-12; 겔 47:18) 불구하고, 남쪽 끝이 아라바 동쪽(Trans-Jordan)에 있다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요단 동편 지역은 가나안과 유다의 경계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오기 전에도 가나안의 경계에는 요단 동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전 14-13세기에 애굽이 당시 강대국들과 맺은 가나안 관할권과 관련된 국제조약들- 예컨대, 람세스 2세(주전 약 1270년) 시에 하티(Hatti)와 맺은 조약, 투트모스(Thutmose) 4세의 미타니(Mitani)와의 조약 등 - 에서도 가나안 지역에 요단 동편이 포함되지 않았다.⁴² 가나안이란 이름은 주전 14-13세기에 팔레스틴과 시리아에서 애굽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타이틀이었으며,⁴³ 자신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당한 상속자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경계에 관한 개념에서도 요단 동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민 32:32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 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고백을 진술하고 있으며, 34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는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상술해 주고 있다. 사실 민 34장에서 상술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범위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범위를 나타내는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13:2)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이런 뼈대 안에서 이스라엘 정복에 관한 기사 또한 진술되고 있다. "신 광야에서부터"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차지할 남쪽 경계를 나타낸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기사이다. 1-39절의 정복기사에서 요단 동편의 왕과 싸웠다는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지역에 대한 정복을 40절과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40절에서 정복지역을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라는 말로 열거하고, 41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라고 전체적인 정복영역을 요약하고 있다. 이 기사는 가데스 바네아가 요단 동편에 있다는 일말의 힌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민 34에서 진술하고 있는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에 요단 동편(Trans-Jordan)이 전혀

⁴¹ 트리봇(מִצְבֹּת)의 원형 트리바(מִצְבָּ)는 '다툼'이란 뜻이다. 민 27:14를 보면 신('צן' מַצְ) 광야의 가데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데스에서 나온 물을 가데스의 트리바 물이라고 하였다.

⁴²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74-75.

⁴³ Ibid., 74.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길르앗과 요단 동편 남부 지역조차도 이들이 생각하던 가나안의 경계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 받은 두 지파 반(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들이 쌓은 제단 문제의 진실 규명을 위해 찾아 온 사절단에게 두 지파 반의 대표가 해명하는 기사를 담고 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수 22:24-25절). 이 말은 가나안의 경계가 요단 동편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⁴⁴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도 않은 지역을 유다 남부의 경계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민 34에서 동쪽 경계선이 하살에난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긴네렛 호수 동쪽 해변을 지나 염해(사해)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염해 끝에서부터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가 바르 데로마(H. Bar-Deroma)이다.⁴⁵ 그의 해석의 출발점은 민 34:3의 히브리어 "케드마 קֶדְמָא"라는 표현이다. 즉 그는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라는 표현에서 '동쪽으로'에 대한 히브리어 "케드마 קֶדְמָא"를 아라바 동쪽 지역이 유다의 경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에 따라 그가 그리는 가나안 남쪽 경계선은 아라바의 동쪽을 포함시키고 홍해에 다다랐다가 북서쪽으로 올라가 수에즈 운하에 이르고 '애굽 강'(Egyptian River)에 이른다. "케드마 קֶדְמָא"란 하나의 부사를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 그가 그려내는 가나안 남부의 경계선에는 요단 동편(아라바 동쪽)의 일부뿐만 아니라, 시내 반도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데로마의 이러한 해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나안의 경계를 담고 있는 애굽 조약의 내용 및 성경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나안의 경계에 관한 구약성경의 생각은 주전 13세기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가나안인들의 생각에 시내 반도는 애굽에 속하는 것이었다.⁴⁶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인들의 땅 경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는 민 34:5에 나타난다. 바로 '애굽 시내'에 대해 '나하르 נַחַר'나 '에오르 אֵאוֹר'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할 נַחַ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굽 시내에 대해 '나하르 נַחַר'란 용어를 쓸 때는 지칭하는 애굽 강이 '시홀 시내'를 나타내며 가나안의 경계가 '애굽 앞', 즉 애굽 동쪽 경계까지

⁴⁴ Ibid., 76. 참조

⁴⁵ Bar-Deroma, "Kadesh-Barne'a," 101-134.

⁴⁶ Na'aman, "The Shihor of Egypt and Shur That Is before Egypt," 98.

이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시내 반도가 가나안의 경계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나할 נַחַל'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애굽 시내는 '와디 엘 아리쉬'를 지칭하게 되어⁴⁷ 시내 반도는 가나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테로마가 그의 논문에서 말하는 '애굽 강'(Egyptian River)은 '나할 נַחַל'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는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이 홍해를 지나 마침내 "수에즈 운하와 애굽 강"(Gulf of Suez and the "River of Egypt")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⁴⁸ 수에즈 운하와 가까이 하는 애굽 강이라면 나일 강이거나 '나일 강'의 지류로 볼 수 있는 '시홀 강(시내)'⁴⁹일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상시천이다. 테로마는 '애굽 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홀'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시홀이 아니라면 나일 강인데, 나일 강은 항상 '에오르 יַאֵר'란 히브리어로 표기되고,⁵⁰ '나일 강' 자체는 가나안과의 경계 개념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 13:3의 "애굽 앞 시홀 אֲשֶׁר עַל-פְּנֵי מִצְרַיִם"의 시홀과 창 15:18의 '애굽 강 נַחַל מִצְרַיִם'이 동일시되며, 이 때 애굽 '강'은 '나하르 נְהַר'로 표기된다.⁵¹ 따라서 '나하르 נְהַר'인 '시홀 시내'는 민 34:5의 '애굽 시내'를 나타내지 못한다. '나하르'는 상시천인데 비해, 민 34:5의 '애굽 시내 נַחַל מִצְרַיִם'에 대한 '와디'(Wadi)와 동의어로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계절천을 말한다. 민 34:5과 수 15:4에 언급되고 있는 '애굽 시내' 곧 '나할 미쯔라임 נַחַל מִצְרַיִם'은 상시천인 나일강이나 시홀 시내와는 무관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굽 시내'는 '와디 엘-아리쉬'(Wadi el-Arish)이며, 민 34:5과 수 15:4의 '애굽 시내' 역시 '와디 엘-아리쉬'(Wadi el-Arish)인 것이다.

따라서 테로마의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민 34:3의 "동쪽으로"라는 표현을 병행본문인 수 15:2과 함께 읽어야 한다: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

⁴⁷ 그러나 Na'aman은 “애굽 시내”를 “브솔 시내”로 본다. Nadav Na'aman, “The Brook of Egypt and the Assyrian Policy on the Egyptian border,” *Tel Aviv* (1979): 68–90.

⁴⁸ *Ibid.*, 103.

⁴⁹ 시홀은 성경에서 5번 언급되고 있다(수 13:3; 19:26; 사 23:3; 렘 2:18; 대상 13:5).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홀을 나일의 지류로 보고 있다: Lipschitz, *Sinai*, 48; Na'aman, “The Shihor of Egypt and Shur That Is before Egypt,” 96.

⁵⁰ 창 41:1,3,17,18; 출 1:22; 2:3,5; 4:9; 7:15,17,20,21,24,25; 8:11; 17:5; 사 19:8; 렘 46:7,8.

⁵¹ 수 13:3은 시홀을 나일강의 최 동쪽 지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내 반도를 가나안 땅에 포함시키는 유일한 문헌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창 15:18과 함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양식에 의해서만 나타내지는 경계는 가나안의 경계를 나타내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61.

서 시작하여(민 34:3)

וְהָיָה לָכֶם פְּאֵת־נֹגֵב מִמִּדְבַּר־צֹן עַל־יְדֵי אֲדוֹם וְהָיָה לָכֶם גְּבוּל נֹגֵב מִקְצֵה יַם־הַמֶּלַח קְדָמָה: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수 15:2)

וְהָיָה לָהֶם גְּבוּל נֹגֵב מִקְצֵה יַם הַמֶּלַח מִן־הַלְשָׁן הַפְּנִיָה נֹגֵבָה:

민 34:3의 '동쪽으로'는 수 15:2의 '해만'과 병행된다. '해만'에 대한 히브리어는 '혀'라는 뜻의 '라손'(לשון)인데 남쪽 사해에 있는 요단 동쪽 해안에서 서쪽으로 솟아 나온 '리산' 반도를 말한다. '리산 반도'에서부터 남쪽 경계선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다만, 염해의 끝을 사해 남동쪽 끝에서부터인가 아니면 남서쪽 끝에서부터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두 본문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케드마 קֶדְמָה"의 뜻을 '염해 남단의 동쪽 끝에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해 남단의 남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 즉 대해(지중해)로 연결되는 가나안과 유다의 남단 경계선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볼 경우, 아라바 광야 북동쪽의 일부 지역, 예컨대 소알을 비롯한 몇 성읍들이 가나안 남부 경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창 10:19 참조).⁵² 그러나 "케드마 קֶדְמָה"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성서지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가나안의 남부 혹은 유다 남부 경계선에 아라바 동쪽 지역 즉 에돔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가나안과 유다의 남부 경계선에 근거해 볼 때, 가데스 바네아는 결코 요단 동편에 위치할 수 없다.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이들은 '라오즈 산'을 시내산으로 간주할 경우, 신 1:2에 따라 열 하루 길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로 볼 수 있는 장소로 '페트라'를 지정할 수 밖에 없고,⁵³ 그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 광야' 역시 요단 동편에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3. 에돔의 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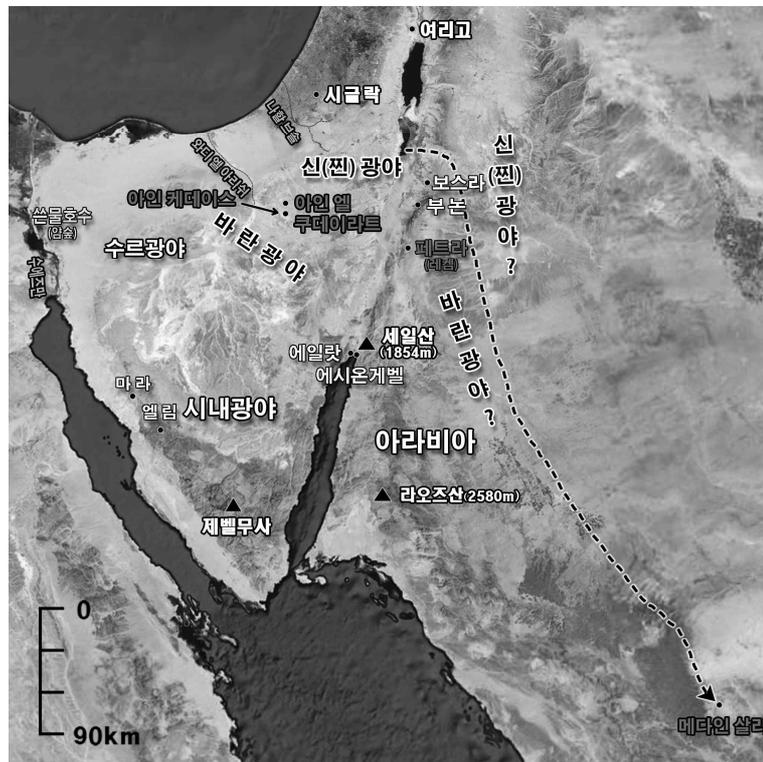
민 20:16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랑을 끝내고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때,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고 말

⁵² Ibid., 70.

⁵³ 미리암이 죽었고 모세가 의심하면서 반석을 쳐서 백성에게 마실 물을 준 가데스 바네아는 아라비아의 페트라 도시 근처 광야다. Eusebius and Jerome, *The Onomasticon: Palestine in the Fourth Century A.D.* (ed. G. S. P Freeman-Grenville, Rupert L Chapman, and Joan E Taylor; Jerusalem: Carta, 2003) 64. 유세비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페트라 근처 광야와 동일시 했는데 특별한 근거에서라기 보다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전제하였기에 나온 결과일 뿐일 것이다.

한다. 변방에 대한 히브리어 '그불'(גבול)은 어떤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모퉁이'에 대한 '크체'(כֶּצֵד)는 '끝'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에돔의 '변방 모퉁이'라는 말은 에돔 영역의 끝이라는 말로서 사실상 에돔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페트라라는 에돔의 '변방 모퉁이'인가?

에돔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에돔 영역 밖의 성읍에 속하는가? 답은 절대로 '아니다'이다. '페트라'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Bozra, 현대의 Buseirah)⁵⁴에서 직선거리 52km에 위치해 있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에돔의 중앙에 위치한 성읍이었다.



<지도 6 메디안 살레와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호렙산에서 열 하루 길'이라는 진술과 '에돔의 변방'이라는 진술, 양자를 고려하여 데로마는 성경의 '가데스 바네아'를 아카바에서 남동쪽 450km 떨어진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안

⁵⁴ 성경시대에 에돔 왕국의 수도는 “보스라”였다. Stephen Hart, “Sela: The Rock of Edom?,” *Palest. Explor. Q.* 118, no. 2 (1986): 91; 그런데 데로마(H. Bar-Deroma)에 의하면 보스라(Bosra) 자체가 페트라이다. 아람어로 보스라가 “부트라”(Butra) 혹은 “보트라”(Botra)로 발음되었고 후에 헬라어로 “페트라”(Petra)로 발음되었다고 한다. Bar-Deroma, “Kadesh-Barne’a,” 106. 흔히 성경의 “보스라”와 동일시되는 현재의 “엘-부세이라”(El-Buseira)는 모압의 성읍이지, 에돔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위의 글, 각주 28).

살리'(Medain Salih)에 위치시키고 있다. 데로마의 주장은 수 10:41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남부의 최남단을 나타내는 경계지로 진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황당한 느낌을 준다. '메다인 살리'(Medain Salih)가 '가데스 바네아'라면, 여호수아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했다는 말이 되는 데, 가나안의 경계에 대한 기본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에돔의 변방'이란 표현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수 15:1로 돌아가 보자.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와 에돔의 경계가 마주치는데, 마주치는 곳이 '신('צן' שֵׁן) 광야'라는 말이다. 이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라는 민 34:3의 표현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 표현에 의하면 '신('צן' שֵׁן) 광야'는 유다의 경계에 포함된다. '신('צן' שֵׁן) 광야'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되지만, '신('צן' שֵׁן) 광야' 자체가 전부 에돔의 영역에 포함될 수는 없다. 그러나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이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지도에 의하면 '신('צן' שֵׁן) 광야'는 에돔의 영역 내에 속해 있다.

네게브는 황량하지만 고대로부터 주요한 무역통로였다. '왕의 대로'(Kings Highway: 아라비아-페트라-다메섹)와 애굽 및 지중해와 연결해 주는 통로가 네게브였다. 출애굽 당시, 즉 청동기 말기의 에돔인들은 보스라(Bozra=Buseirah)를 중심으로 한 아라바 광야 동쪽의 산지를 자신들의 주된 거점으로 삼고 있었고, 네게브 지역도 자신들의 세력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된 거주지가 황량한 산지였으므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은 일찍부터 '육지의 상인'으로 불릴 정도로 무역에 뛰어난 수완을 보였다.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에 에돔이 아라바 동쪽의 산지에 머물지 않고 서쪽 광야, 즉 네게브 광야까지 세력권이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된다. 최근 팀나 발굴 결과는 후기 청동기 시대, 즉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당시 에돔 왕국의 세력권이 네게브 지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성경의 진술⁵⁵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9년의 팀나 발굴(사이트 30)을 통해서 벤 요셉(E. Ben-Yosef) 등은 팀나 구리광산의 발굴의 기술과 생산 시스템 등을 볼 때, 제련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복잡한 사회 체계를 지녔다고 보고하고 있다.

⁵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변방 가데스에 있다는 민 20:16의 진술은 에돔의 세력이 중부 네게브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도 7 에돔의 경계>

작은 '시행착오'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는 제련 기술을 볼 때, 실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졌고 주전 12세기 이전, 즉 후기 청동기 시대에 복잡한 조직을 갖춘 사회, 즉 성경의 에돔 왕국을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⁵⁶ 팀나 구리광산에서 발견된 토기 중 75%의 토기가 에돔의 것인데 반해, 10% 정도가 아라비아(아마도 Qurayyah)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⁵⁷ 남부 아라바 지역의 제련 장소들로 나온 물질 문명을 부논(현, Faynan)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병행을 이루고 있어서 네게브의 에돔 지배를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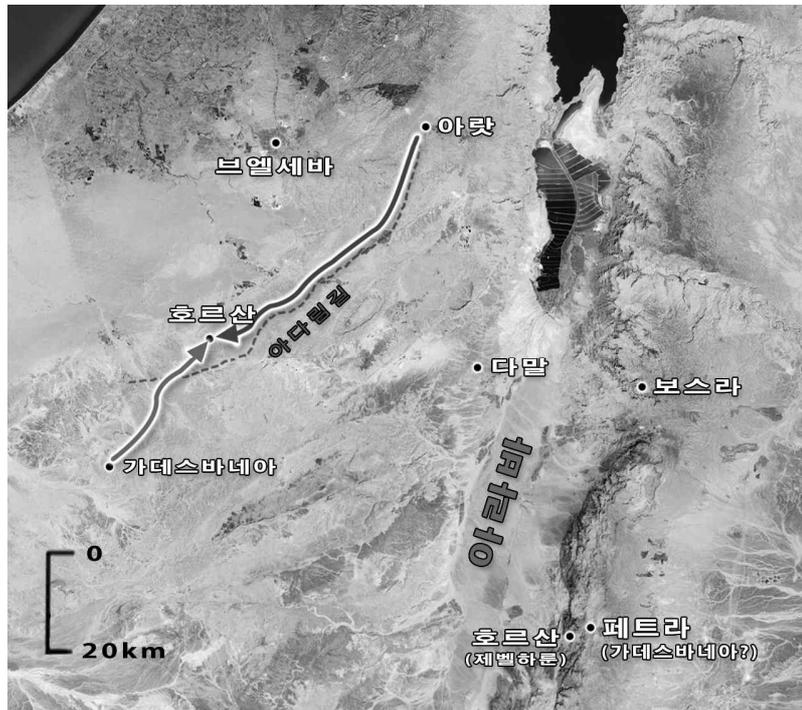
4.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여정

4.1. 아다림 길과 호르 산

만일 가데스 바네아가 요단 동편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호르 산으로 향하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⁵⁶ Erez Ben-Yosef et al., "A New Chronological Framework for Iron Age Copper Production at Timna (Israel)," *Bull. Am. Sch. Orient. Res.*, no. 367 (2012): 31-71. 특히 64의 각주 16 참조.

⁵⁷ J. Gunneweg, "'Edomite', 'Negebite' and 'Midianite' Pottery from the Negev Desert and Jordan: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Results," *Archaeometry* 49, no. 2 (2007): 251.



<지도 8 아다림 길과 호르산>

민 21:1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랏의 왕이 공격해 온 사건을 보고 하고 있다(33:40 참조).⁵⁸ 만일 가데스 바네아가 요단 동편, 오늘날 페트라에 있다면 아랏 왕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요단 동편의 일이고 아랏의 안보와 별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가 에인 엘-쿠데이라트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아랏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칠십인역(LXX)에서 아다림(히브리어 '아타림' אַתְרִים)은 아타르(אַתָּר)의 복수형태로서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한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타림'은 '탐지하다, 정탐하다'는 뜻의 동사 '투르'(תּוּר)의 분사형으로서 '정탐꾼'이란 뜻을 지닌 '타림'(תְּרִים)에 접두어 '알렙'(א)이 붙은 보통명사이다. 따라서 '아다림 길'은 아랏을 넘보는 첩자들이 드나들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사용했던 길이었으며(민 13:21),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호르산에서(20:22)에서 아랏으로 연결되는 길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대의 아인 엘-쿠데이라트,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 산을 향해 갈 때, 아랏 왕은 긴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⁵⁸ 병행 본문인 민 33:40에서는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고 아랏 왕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만 보고 하고 있다.

4.2.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 이후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사건에 관한 민수기와 신명기의 진술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세일산과 관련해서 그러하다. 먼저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한 처벌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민 14:25과 신 1:40)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소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민수기 14:45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고 말하는데 비해, 신 1:44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고 보고하고 있다.

민수기와 달리 신명기에서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아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산지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인들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진멸이란 뜻을 지닌 '호르마'(חורמה)는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가데스 북쪽 브엘세바의 남동쪽에 위치하였다. '호르마'는 민 21:3와 삿 1:17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랏 주변 성읍 파괴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진멸한 '아랏 남방' 부근 혹은 그 지역 내의 '스밧'을 '호르마'로 이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가나안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인과 네게브에 거주하던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일'에서 공격했다는 진술은 본문에서 말하는 신 1:44의 '세일'이 결코 아카바 만 북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민 14:45의 진술과도 너무 동떨어진 그림이다.

따라서 세일산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 사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신 1:2의 진술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최남단과 북단의 경계를 묘사하는 수 11:17과 12:7을 바탕으로 신 1:44에서 언급되는 세일산의 위치를 찾아내 보자. 수 12:7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리하니라." 본문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최남단을 할락산으로 진술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세일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므로 세일산은 할락산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 남동 약 40 km에 위치한 할락산의⁶⁰ 동쪽은 아라바 광야로 연결되어 산이 없고 남쪽은 중부 네게브의 산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⁵⁹ 고고학적으로 호르마는 브엘세바 근처 텔 엘-메샤쉬(Tell el-Meshash)로 동일시된다.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317, 413;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78. 참조.

⁶⁰ 할락산의 위치에 관해서는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142, 지도 4 참조.



<지도 9 세일산 위치>

따라서 전통적인 세일산의 위치에 관한 선입견을 버리고 신 1:2과 수 12:7(11:17)의 진술을 바탕으로 할 때, 정해지는 세일산 - 적어도 신 1:44의 세일산 - 은 아라바 서쪽, 할락산 남쪽의 중부 네게브 산지가 될 것이다.⁶¹

⁶¹ N. MacDonald, "Edom and Seir in the Narratives and Itineraries of Numbers 20-21 and Deuteronomy 1-3," in *Deuteronomium: Tora für eine neue Generation* (ed. Georg Fischer, Dominik Markl, and Simone Paganin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83-103; 세일산이 브엘세바 남쪽 고지 아라바 서쪽에 위치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는 아벨(F. M. Abel, *Geographie de la Palestine* [Paris: J. Gabalda, 1933], 281-5, 389-91)이었다. 올브라이트는 이런 아벨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는데, 우선 넬슨 글릭에 의해 주장되는 고고학적 근거에 의해 비판을 하고, 둘째 "세일"은 숲이 우거졌다는 의미에서 비판을 했다. 바로 숲이 우거진 지역은 아라바 동쪽 에돔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아라바 동쪽 에돔은 역사시대에 숲이 우거졌던 곳이다. William Foxwell Albright, *The Vocalization of the Egyptian Syllabic Orthography* (New Haven,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34), 38;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바르트레트(J. R. Bartlett)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세일"을 나무와 연결시킬 때, 그 나무는 에돔에서 발견되는 백향목과 포플라 나무로 덮여 있다는 말이 아니라 관목과 덤불과 같은 것으로 덮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일"이 상징하는 나무는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광야 길로 하룻길을 가서 그 아래에 누웠던 로렘나무와 같은, 그래서 키가 60~80cm 정도되는 과작은 덤불 같은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라는 것이다. J. R. Bartlett, "The Land of Seir and the Brotherhood of Edom," *J. Theol. Stud.* 20, no. 1 (1969): 1-20. 네게브와 아라바 지역에는 이런 회색 관목과 허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세일산이 신 2:1,4 및 2-8절의 세일과 동일한 것인가? 먼저 신 2:1과 4절의 세일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신 2:1에서는 세일산 주위를 맴돈 것 같은 인상을 주고, 4절에서는 맴돈 것을 멈추고 세일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읽혀진다.⁶² 만일 동일한 지역의 세일산 주위를 맴돌다가 그 산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본문을 읽게 되면 병행본문인 민 20:14 이하와 비교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민 20:14이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고 하면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한다. 그런데 신 2:1의 진술을 에서의 자손 곧 에돔인들이 거주하는 세일산 주변을 맴돌았다는 식으로 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 들어와서 "여러 날"을 보낸 것이 되며 정황상 맞지 않다.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장소에서 "여러 날"을 보낸 것으로 보고한다. 하나는 가데스에서 여러 날을 보냈고(1:46), 다른 하나는 세일산 주위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2:1,3).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여기서 보낸 "여러 날"은 38년 광야 방랑기간을 말함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여러 날"이란 표현은 1:35-44의 진술내용, 즉 38년간의 광야 방랑 사건을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과 원망을 회고하는 내용에 뒤이어 나오기 때문이다. 적어도 민수기 20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신 2:1의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 곧 에돔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아라바 동편의 세일산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다. 신 2:1의 시내산은 수 11:17과 12:7에서 언급되는 세일산, 곧 아라바 서쪽, 할락산 남쪽의 중부 네게브 산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일산을 하나의 산이 아닌 에돔인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내지 거대한 세일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 1-2 장에서 언급되는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들이 장악하여 살던 영토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악 지대로서 남서쪽으로 아카바 만에 이르며, 동서로는 아라바 동부 경사지에서 아라바 서쪽 산지에 이르는 고지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 2:1에서 언급되는 세일산은 네게브 서쪽의 산지로서 이 산지 주위를 맴돌았다는 말은 곧 '신('צִן ' צַ) 광야'를 방랑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1:46과 2:1,3에서 언급되는 "여러 날"은 가데스 바네아가 포함된 '신('צִן ' צַ)에서 방랑한 38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15-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38년간 방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신 1:46과 2:1은 이들이 보낸 "여러 날" 곧 38년의 방랑 기간과 방랑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⁶² 4절의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의 '지역으로 지날진대'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 '오브림 비그불'('עֲבָרִים בְּגִבּוֹל')은 국경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사건에서 비롯된 방랑을 끝내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묘사하는 신 2:8-14⁶³의 그림이 분명해 진다: 가데스 바네아 → '신('צִן' מַצְרַיִם)에서의 38년간 방랑 → 방랑이 끝난 후 아라바를 지나 → 엘랏과 에시온게벨을 지나 → 세렛 시내

5. 출애굽과 고고학적 증거

1967년부터 1982년까지 15년간 시내 반도의 출애굽 루트를 따라 진행된 15년간의 발굴은 고고학자들의 손에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의 발굴물도 쥐어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벤자민 마자르(Benjamin Mazar)를 비롯한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출애굽을 신화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출애굽은 과연 신화일까? 1993년 『Jerusalem Report』 4월호 커버 스토리에는 "Did the Exodus Really Happen?"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⁶⁴ 출애굽과 관련된 여러 견해를 소개하는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학자는 15년간 시내 반도의 발굴을 이끌었던 아브네르 고렌(Avner Goren)이다. 그는 역사적 사건은 물질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가정을 깨트리고 있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그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⁶⁵ 이러한 고렌의 견해가 고고학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와터맨(L. Waterman) 등은 유목민들은 정작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⁶⁶ 2006년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렌은 "15년을 발굴하면서 추적해 본 베두윈의 뒷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제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전 베두윈들이 그랬던 것과 똑 같은 사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유목민들은 도자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건 무겁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집을 짓지도 않는다. "텐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이 모닥불 피울 때 썼던 3개의 돌이나 텐트가 있었던 곳의 흙 색깔이 약간 변한 것 외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2~3년 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사막의 사람들은 목축을 위해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 남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 베두윈에 관한 우리의 연구 결

⁶³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⁶⁴ Felice Maranz, "Did the Exodus Really Happen?" *Jerusalem Report* April 8 (1993), 16-20.

⁶⁵ *Ibid.*, 16.

⁶⁶ Leroy Waterman, "The Authentication of Conjectural Glosses," *J. Biblic. Lit.* 56, no. 3 (1937): 253; H. L. Ginsberg, "Judah and the Transjordan States from 734 to 582 B.C.E.," in *Alexander Marx; Jubilee Volume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0), 347 n. 1;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section 68 n.9.

과는 단지 일년만 지났는데도 거기에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단지 한 세대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⁶⁷

6. 나가면서

성서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나이산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증거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장소들 - 홍해, 수르 광야, 가데스 바네아 등 - 이 요단과 아라바 서편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저명 학자들조차 자신들만의 논리에 과묵히 너무나 명백한 성서지리적인 증거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7. 참고 문헌

-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 Albright, William Foxwell. *The Vocalization of the Egyptian Syllabic Orthography*. New Haven,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34.
- Bartlett, J. R. "The Land of Seir and the Brotherhood of Edom."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0, no. 1 (1969): 1-20.
- Davies, Graham I. "The Significance of Deuteronomy 1. 2 for the Location of Mount Horeb."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1, no. 2 (1979): 87-101.
- Bar-Deroma, H. "Kadesh-Barne'a."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96, no. 2 (1964): 101-34.
- . *זה סיני. 이것이 시나이산이다*. Jerusalem, 1967.
- Driver, S. 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With an Introduction on Hebrew Palaeography and the Ancient Versions and Facsimiles of Inscriptions and Maps*. Oxford: Clarendon, 1913.
- Ephal, I. "'Ishmael' and 'Arab(s)': A Transformation of Ethnological Term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35, no. 4 (1976).
- Eusebius, and Jerome. *The Onomasticon: Palestine in the Fourth Century A.D.* Edited by G.

⁶⁷ Maranz, "Did the Exodus Really Happen?," 20.

- S. P. Freeman-Grenville, Rupert L. Chapman, and Joan E. Taylor. Jerusalem: Carta, 2003.
- Ginsberg, H. L. "Judah and the Transjordan States from 734 to 582 B.C.E." *Alexander Marx; Jubilee Volume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0.
- Gunneweg, J. "'Edomite', 'Negebite' and 'Midianite' Pottery from the Negev Desert and Jordan: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Results." *Archaeometry* 49, no. 2 (2007): 373–81.
- Hart, Stephen. "Sela: The Rock of Edom?"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8, no. 2 (1986): 91–95.
- Hoffmeier, James K.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97.
- Kerkeslager, Allen. "Mt. Sinai in Arabia?" *Biblical Review* 16, no. 2 (2006): 32–39, 52.
- Lipschitz, Ora. *Sinai*. Tel Aviv: Simor, 1978.
- MacDonald, N. "Edom and Seir in the Narratives and Itineraries of Numbers 20-21 and Deuteronomy 1-3." *Deuteronomium: Tora fu"r eine neue Generation*. Edited by Georg Fischer, Dominik Markl, and Simone Paganin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 Maranz, Felice. "Did the Exodus Really Happen?" *Jerusalem Report*, no. April 8 (1993): 16–20.
- Musil, Alois. *The Northern Hēgāz: A Topographical Itinerary*.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26.
- Na'aman, Nadav. "The Shihor of Egypt and Shur That Is before Egypt." *Tel Aviv* 1980, no. 1–2 (1980): 95–109.
- Na'aman, Nadav. "The Brook of Egypt and the Assyrian Policy on the Egyptian border." *Tel Aviv* (1979): 68–90.
-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othenberg, Benno. *God's Wilderness. Discoveries in Sinai*. London: Thames & Hudson, 1965.
- Shanks H. "Where Is Mount Sinai?: The Case for Har Karkom and the Case for Saudi Arabia." *Biblical Archaeology Review* 40, no. 2 (2014): 30–41+66.
- Simons, Jan Jozef.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A*

- Concise Commentary in XXXII Chapters*. Leiden: Brill, 1959.
- Stoebe, Hans Joachim. *Das erste Buch Samueli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3.
- Trumbull, H. Clay. *Kadesh-Barnea: Its Importance and Probable Site, with the Story of a Hunt for It: Including Studies of the Route of the Exodus and the Southern Boundary of the Holy Land*. London: Hodder & Stoughton, 1884.
- Waterman, Leroy. "The Authentication of Conjectural Gloss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6, no. 3 (1937): 253–59.
- Winnet, F. V. "The Arabian Genealogies in the Book of Genesis." *Translating &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Herbert Gordon May*. Edited by Herbert G. May, Harry Thomas Frank, and W. L. Reed. Nashville: Abingdon, 1970.
- Ben-Yosef, Erez, Ron Shaar, Lisa. Tauxe, and Hagai Ron. "A New Chronological Framework for Iron Age Copper Production at Timna (Israe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no. 367 (2012): 31–71.
- 강후구. "시내산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고학적 고찰: 떨기나무에 대한 소고." *성서마당*, no. 가을호 (2009): 77–88.
- 김승학. 『떨기나무: 미디안 땅의 시내산을 찾아, 그 7년의 기록』. 서울: 두란노, 2007.
- 이일호. "소위 시내산 위치 논쟁에 대하여." *성경과 고고학*, no. 여름호 (2011): 83–109.
- 프로반이안.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Translated by 김구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정연호 박사의 “시내산은 어디인가? 성서지리학적 접근” 논찬

권혁승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I. 시작하면서

1. 2007년 김승학씨의 「떨기나무: 미디안 땅의 시내산을 찾아, 그 7년의 기록」이 출간되면서 한국교회에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때 아닌 논쟁이 일어났다. 매년 수많은 한국교회 성지여행객들이 다녀오는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제벨 무사’)이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또한 그런 주장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예기치 않은 신앙적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 시내산 위치가 아라비아에 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용하거나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 그것은 시내산 위치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 되었던 여러 주장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지지받지 못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시내산 위치가 어디이냐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 위치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주장들은 모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하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그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성경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내산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진짜이고 시나이반도의 시내산은 거짓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승학씨의 「떨기나무」가 출간된 지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학회가 시내산 위치에 관한 공개연구발표를 개최한 것은, 늦은 감이 있긴 해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너무도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이번 연구발표를 통하여 그동안 불필요했었던 논쟁과 혼란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II. 정연호 박사의 논문 내용 요약 및 평가

1. 정박사는 자신의 글이 시내산 위치에 관해 성서지리적 측면에서 다룬 첫 번째 논문임을 밝히

면서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의 지점인 수르광야와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정착하였던 가데스바네아의 위치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데스바네아를 떠난 이후의 여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박사는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연구는 시내산이 시나이반도에 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반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박사의 연구방법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지리적으로 규명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이다. 그것은 성경본문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첫 번째 관찰 포인트인 수르광야의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정박사는 ‘수르’는 어원적으로 애굽이 시나이반도를 거쳐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동부 델타지역 곧 시나이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일련의 요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정박사는 또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신광야의 르비딤 위치가 수르광야와 인접하여 있음을 논증함으로 아말렉 공격이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정박사는 ‘갈대바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얄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건넌 홍해의 위치로 현재의 스웨즈만 근처의 ‘Bitter Lake’를 지지하였다. 수르광야가 아라비아에 있다는 증거로 김승학씨가 제시한 민수기 25:15의 ‘수르’는 출애굽기 15:22의 ‘수르’와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곧 민수기의 ‘수르’는 ‘짜멕’이지만, 출애굽기의 ‘수르’는 ‘원’으로 시작되는 단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정해야 할 점은 민수기의 ‘수르’가 “짜멕 ‘이 아니라 ’ 차태 ‘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점이다.

3. 두 번째 관찰 포인트로 가데스바네아의 위치를 다룬 정박사는 가나안의 경계와 관련된 성경 진술들을 들어 가데스바네아의 위치를 페트라 혹은 메다인 살라로 보는 입장의 부당함을 논증하였다. 성경적으로 트랜스 요르단이 가나안과 유다의 경계에 포함된 적이 없고, 그런 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적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데스바네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 증거로 정박사는 민수기 20:16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돔의 변방’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에돔의 통치 영역 밖을 의미하는 ‘에돔의 변방’에 위치한 가데스바네아가 에돔의 수도 보스라 가까이에 있는 페트라라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박사의 판단이다.

4. 세 번째 관찰 포인트인 가데스바네아 이후의 여정에서 정박사는 세일산과 관련된 본문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스라엘의 광야여정과 관련되어 언급된 세일산은 에돔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아라바의 서쪽, 할락산의 남쪽 중부네게브 산지였다는 것이 정박사의 주장이다. 그럴 경우 이스라엘이 세일산지 주위를 맴돌았다는 신명기 2:1의 언급은 곧 가데스바네아 주변의 신(짚)광야를 방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가데스바네아가 페트라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

한 성경적 증거이다.

5.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로서 정박사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진행되었던 고고학 발굴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15년간(1967년~1982년)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출애굽과 관련된 어떠한 발굴물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런 결과를 근거로 일부 고고학자들은 출애굽이 실제 역사가 아닌 신화라는 주장을 내놓기 도 하였다. 그러나 정박사는 그것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막 유목민들의 삶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보낸 기간이 단 한 세대뿐이었음을 고려할 때, 흔적이 남겨지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박사의 견해이다.

III. '누에이바' 홍해 위치에 관한 개인적 소견

1.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성서지리적으로 규명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점은 지리라는 공간적 요소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시간적 언급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출애굽과 관련하여 성경이 지리적 언급과 더불어 중요한 시간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시간적 요소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규명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2. 김승학씨는 이스라엘이 기적으로 건넌 홍해의 위치가 아카바만의 누에이바라고 주장한다. 애굽의 나일델타지역에서 거대한 시나이반도를 횡단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누에이바가 과연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의 후보지가 될 수 있을까? 출애굽 한 후 이스라엘백성들이 시나이반도를 횡단하였다고 가정할 때, 보다 빠른 직선길이면서도 시나이반도의 험준한 산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누에이바가 아니라 타바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길은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는 육로이기도 하다.

3. 홍해가 시나이반도를 횡단해야 하는 아카바만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아라비아의 시내산 주장은 지리적으로나 성경에 언급된 시간적 요소와 맞지 않는다. 우선 오늘날의 탱크에 해당되는 애굽의 선발된 병거 육백 대가 본격적인 사막인 시나이반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곧바로 자신의 병거부대를 출동시킨다(출 14:5-7). 도보로 행진하는 이스라엘백성들과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거부대의 속도를 감안하면, 바로의 병거부대 출동명령은 출애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관련된 성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성경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둘째 달 십오일’임을 밝히고 있다(출 16:1). 이것은 출애굽 기점인 유월절 이후 한 달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시점은 출애굽 한 후 15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시간 계산으로는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백성들이 제대로 된 도로도 없는 시나이반도를 횡단하여 누에이바에 도착했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내산 도착 시기를 ‘삼 개월이 되던 날’ (출 19:1)로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일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 대략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시나이반도 횡단이 15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여 홍해를 건넌 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라비아의 시내산까지는 그보다 2배 내지 3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셈이 된다. 그것 역시 아라비아의 시내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다.

시내산 위치에 대한 성서적 고찰

정 현 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신앙 내용) 또는 구약성경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시내산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여호와⁶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계약(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받았고 당신의 백성은 대대로 그 율법들을 그대로 지켜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유지하고 또 계승해 갈 수 있었다.

본 소고의 목적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을 신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시내산의 위치를 성경의 내용으로 부터 알아 보고자 함에 있다. 구약성경(신학)의 연구사를 생각할 때 특히 지난 세기에 흥미했던 소위 전승사적(traditio-historical) 연구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고의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구약의 종교 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⁶⁹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성경의 역사성과 밀접히 관계된다는 점에서 성경을 진리로 신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치있는 일이라 믿어진다.

1. 시내산과 호렙산

시내산(סיני)은 구약성경에서 21번⁷⁰, 신약성경에서 4번⁷¹ 언급되고 있다. 시내산은 또한

⁶⁸ 구약성경 원문에 6,000회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의 발음은 "야훼" 등으로 추측되나 본 고에서는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를 채용한다.

⁶⁹ 현대적 의미에서 이 연구방법은 궁켈(H. Gunkel), 폰 라트(G. von Rad), 노트(M. Noth)와 앵그넬(I. Engnell), 링그렌(H. Ringgren), 알스트룀(G. Ahlström)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⁷⁰ 출19:11, 18, 20, 23; 24:16; 31:18; 34:2, 4, 29, 32; 레7:38; 25:1; 26:46; 27:34; 민3:1; 28:6; 신33:2; 사5:5; 시68:9(8), 18(17); 느9:13 (괄호 안은 한글 성경-본 고에서는 개역개정을 사용함). 한글 성경 출16:1에 "시내산"이라고 번역된 סיני는 "시내광야"로, 신33:2의 סיני는 "시내산"으로 보며 이는 A. Even-Shoshan ed., *A New*

다섯 번 “하나님의 산” (הַר הָאֱלֹהִים)⁷²이라 그리고 한 번 “여호와의 산” (הַר יְהוָה)⁷³이라고 불리는데 한글 성경 출 3:1과 왕상 19:8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 (הַר הָאֱלֹהִים חֹרֵב)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시내산과 분명히 동일한 곳을 여러 번 호렙산이라고 칭하고 있다.⁷⁴ 그리하여 많은 이들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다.⁷⁵

그러나 성경에서 “호렙” (חֹרֵב 또는 חֹרֵב)이란 말이 총 17회 나타나는 중⁷⁶ “호렙산” (הַר חֹרֵב)이란 말이 나오는 곳은 출33:6 한 번 밖에 없다. 한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호렙산”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산” (הַ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이 단지 “호렙”이라는 말만 나오며, 이 단어가 나타날 때면 대부분 “호렙에 있는”이라고 번역해야 할 חֹרֵב 이란 형태(12회), 또는 “호렙으로 부터”라고 번역해야 할 מִחֹרֵב 이란 형태(2회-신1:2, 19)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라고 번역된 출3:1의 원문 הַר הָאֱלֹהִים חֹרֵב 에서는 “호렙(חֹרֵב)”이 아니라 “~쪽으로” 또는 “~방향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소위 방향사 ה가 붙은 “호레바(חֹרֵבָה)”의 형태가 나온다. 우리가 이 형태의 의미를 살려 출3:1의 후반부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를 다시 번역해 본다면 “그 때를 광야를 따라 (또는 광야 가운데로; 원문에는 “서쪽”이란 말이 없다) 인도하여 호렙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매”⁷⁷가 되겠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호렙”은 원래 시내산과 같이 어떤 산의 이름이 아니라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다.⁷⁸ חֹרֵב란 어원이 “메마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아마

Concordance of the Bible (Jerusalem: Kiryat Sefer, 1990)의 분류를 따랐다.

⁷¹ 행7:30, 38; 갈4:24, 25. 이 외에 히8:5; 12:20에 나오는 “산” 역시 “시내산”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⁷² 출3:1; 4:27; 18:5; 24:13; 왕상19:8.

⁷³ 민10:33.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산”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창22:14; 시24:3; 사2:3; 30:29; 미4:2; 슥8:3).

⁷⁴ 출17:6; 33:6; 신1:2, 6, 19; 4:10, 15; 5:2; 9:8; 18:16.

⁷⁵ 구약성경 연구자들 중 소위 문서가설(Documentary Hypothesis)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시내산”이란 명칭의 사용은 J와 P문서 그리고 “호렙(산)”이란 명칭의 사용은 E와 D문서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Cf. W. R. North, “Perspective of the Exodus Author(s)”, *ZAW* 113 (2001): 497-499.

⁷⁶ 위의 각주 7에 적힌 구절들과 출3:1; 신28:69; 왕상8:9; 19:8; 시106:19; 대하5:10; 말3:22.

⁷⁷ [] 안은 원문에 해당 단어가 없지만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임.

⁷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 진을 쳤던 르비딤이 호렙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 (출

도 그 지역이 건조한 광야 지대였기에 그 곳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2. 광야여정과 관련된 기록들

시내산과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생각되는 호렘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가진 광야 여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들 중에서 시내산의 위치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거리 상의 정보를 명확히 담고 있는 구절은 신명기 1장 2절이다.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אַחַד עָשָׂר יוֹם מִחוּרְבַּן דָּרָךְ הַר-שְׁעִיר עַד קְדֹשׁ בְּרִנְעָ:

이 한 구절은 우리가 현재 성경의 가데스 바네아로⁷⁹ 거의 확실히 알고 있는 지점인 Tell el-Qudeirat가⁸⁰ 시내산(원문상에는 “호렘”)으로부터 도보로 11일 걸리는 거리에 있음을 알려 준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여정과 이후 역사에 있어서 시내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기에⁸¹ 이 두 장소간의 거리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1은 7이나 12, 또는 40과 같이 성경에서 상징성을 띠는 숫자가 아니기에 이 구절은 정확한

17:1-7) 호렘은 꽤 넓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Cf. N.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p. 14. 출33:6의 “호렘산”(הַר חֹרֵב)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 사이를 소유의 관계인 것으로 보아 “호렘의 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Cf. B. Waltke and M. O’Conne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p.153.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시내산(הַר סִינַי)을 시내광야(מִדְבַּר סִינַי)와 구분하기 위해 시내산이라 불렀든지 아니면 아마도 호렘이란 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시내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렘에 있는 산이기에 그 산의 이름을 호렘산이라고도 불렀을 개연성도 있다.

⁷⁹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라고도 불린다. (Cf. 신1:46)

⁸⁰ R. Cohen, “Kadesh-Barnea (The Israelite Fortress)” in *NEAEHL* (1993), vol. 3, p. 843.

⁸¹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에서와 같이 그들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다 (cf. 신1:6, 46). 민20:14~21:1과 신명기 1:46~3:29에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남으로 이제 오랜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cf. 신2:14).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⁸²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성경에는 다소 먼 일정 지점 사이의 거리를 사람이 걸어서 가는데 며칠 동안 걸리는 지로 표시하였는데⁸³ 하루 동안 남자 장정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형적이고 환경적인 변수들을 감안하여 17~23 miles (약 27~37 kilometers) 정도로 생각되고 있다.⁸⁴ 그러므로 우리가 신1:2을 신뢰할 만한 정보로 받아들일 때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297~407 kilometers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겠다.

신1:2이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는 다른 정보는 “세일 산을 지나”라고 번역된 הַר שַׁעֲרַי 이라는 용어이다. 우리 말 성경에서 “홍해 길을 따라” 또는 “홍해 길로”라고 번역된 הַר שַׁעֲרַי 이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⁸⁵ 이 용어도 “세일 산지로 향한 길을 따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신 1:2은 출발지를 시내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진술만으로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출발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시내산이 위치한 곳에서 고대에 에돔 민족이 살던 세일 산지 쪽으로 가는 길을 통해 (즉 한글 성경의 번역과 같이 세일 산지 자체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경로가 도보로 11일 걸림을 의미함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계산해본 대략 300~400 kilometers의 거리란 가데스 바네아와 시내산 사이의 직선 거리가 아니라 호렙에서 출발하여 세일 산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지나면서 두 지점 사이를 가장 짧게 연결하는 고대 주요 도로들의 합산 거리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1:2 만큼은 아니지만 출12:37~19:2과 민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특히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을 살펴보면 시내산의 위치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라암셋을 떠나 여리고 맞은 편 모압 평지에 이른 사십년 광야 생활 동안 진을 치고 살았던 마흔 한 곳들이 마치 일종의 여정표와 같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내용은 이 여정표의 시작 부분인 민33:1, 2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짜”(מַצָּע; “노정”이라고 번역됨)라는 단어이다. 울브라이트(W.F.

⁸² 엘리야가 브엘세바 근처로 부터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는 왕상19:8의 기록은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이기 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며 시내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⁸³ Cf. 창30:36; 출3:18; 5:3; 8:27; 민10:33; 11:31; 33:8; 왕상 19:4; 은3:3-4.

⁸⁴ B. Beitzel, “Travel and Communication (OT World)” in *ABD* (1992) vol. 6, p. 646. Cf. G. Davies, “The Significance of Deuteronomy 1:2 for the Location of Mount Horeb,” *PEQ* 111 (1979): 87-101.

⁸⁵ Cf. 민14:25; 21:4; 신1:40; 2:1; “에돔 광야 길”(הַר שַׁעֲרַי מִדְּבַר אֱדוֹם)-왕상3:8.

Albright)에 의하면 이 단어의 어원인 $\nu\pi\lambda$ (동사는 “행진하다”로 번역됨)에는 원래 텐트를 고정하는 “(팩[peg]을) 뽑는다”, 즉 “텐트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으며⁸⁶ “마싸”에는 아침에 텐트를 거두고 저녁에 다시 텐트를 치기까지의 진행, 즉 대상이나 유목민들의 하루 동안의 진행 또는 이주를 의미한다고 한다.⁸⁷ 여기서 진을 쳤다는 말 $\nu\pi\lambda$ 은 “(해가) 기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cf. 사19:9)⁸⁸ 저녁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밤을 보내기 위해 한 장소에 텐트를 치고 적어도 하루 밤 또는 같은 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민수기 33장의 여정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모든 지점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지와 한 지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여정표의 서두에서 저자가 의미하는 바가 인접한 각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도보로 하루 낮 동안 가는 거리임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을 참작할 때 더욱 그런 심증이 간다.

출12:37~19:2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고 (출12:43~13:16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태생과 관련된 율법들임)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머물렀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의 이 부분과 민수기 33장에 있는 여정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가면서 진을 치거나 지나간 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숙곳 (출12:37; 민33:5) - 2. 광야 끝 에담 (출13:20; 민33:6) - 3. 바다와 므딕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출14:2);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므딕 앞 (민33:7) - 4. 홍해를 건넌 (출15:22; 민33:8) - 5-7. 사흘 동안의 방황 (출15:22; 민33:8), 마라 (출15:23; 민33:8) - 8. 엘림 (출15:27; 민33:9) - 9. **홍해가** (민33:10) - 10. 신 광야 도착 (출16:1; 민33:11) - 11. **뚝가** (민33:13) - 12. **알루스** (민33:13) - 13. 르비딤, 마사와 프리바 (출17:1, 7; 민33:14) - 14. 시내 광야=시내 산 (출19:1, 2, 11; 민33:15)

출19:1(“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45일이 걸렸음을 말해주고 있

⁸⁶ Cf.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 and ed. M.E.J. Richardson (Leiden: E.J. Brill, 1995), vol. 2, p. 704.

⁸⁷ Ibid., p. 607, W.F. Albright,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p. 68, n.36.

⁸⁸ Cf. L. Koehler and W. Baumgartner, vol. 1, p. 332..

다.⁸⁹ 하지만 위의 여정이 말해주듯 그 거리는 14일간 (낮 시간 동안) 걷는 거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니 아마도 라암셋을 떠나 홍해에 이르기 까지 삼일 동안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이며 한 장소에 하루 밤 이상 머물렀던 것 같지 않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그들의 행진 속도는 빨라도 남자 장정의 2/3~1/2 정도 즉 하루에 13~24 km를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점인 라암셋이 카이로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100 kilometers 떨어진 지금의 Qantir이라는 것과 출애굽 후 첫 번째 야영지였던 숙곳은 아마도 지금의 Ismailia 근처의 Tell el-Maskhuta를 가리키는 지명이었을 것이라는 것 외에 에담이나 비하히룻 그리고 믱들의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⁹⁰ 이러한 홍해 근처의 장소들이 어디인지가 밝혀지지 않음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왔다.⁹¹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데는 다음 날 새벽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⁹²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마라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된다. 민수기가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여정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물이 충분치 않은 곳에서는 머물 수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지만 정식으로 텐트를 치지 않고 지내며 사흘간의 진행 후 마라에 당도하여서야 그곳이 다량의 물이 있는 곳이었기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여러 날 동안 지낼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비교해 보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홍해 가에서 진을 친 것과 돕가와 알루스에 머물렀던 사실이 출애굽기에는 빠져 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광야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에피소드들을 전하며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들을 자신의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마라 까지의 힘든 경험과 엘림에 와서 만난 열 두 샘과 70 그루의

⁸⁹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셋째 달의 첫 날이었다고 한다.

⁹⁰ Cf. J.R. Huddleston, "Red Sea" in *ABD*, vol. 5, pp.639-640; J.A.H. Seely, "Succoth" in *ABD* (1992), vol. 6, p.217.

⁹¹ Cf. J.R. Huddleston, pp. 638-641.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으로부터 사흘만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다면 그들이 건넌 홍해는 고대의 시나이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존재했던 여러 호수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⁹² Cf. 출14:24.

종려나무는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출15:27) 출애굽 후 꼭 1개월이 되는 날에 도착한 곳이 신 광야였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로한 불만과 이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일이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르비딤은 반석에서 물을 얻는 기적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었다. 즉 이러한 곳들은 광야 여정에 대한 기억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장소들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출애굽기가 신 광야와 르비딤 사이의 두 장소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출 17:1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지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מְהַלְכֵימָהּ이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루 동안의 이동을 의미하는 “마싸”(여기서도 “노정”이라 번역됨)의 복수를 사용하여 몇 번의 낮 이동 후에 즉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돕가와 알루스에서의 일정 시일 동안의 거주가 있는 후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 시내산까지는 민수기의 여정표 대로 여덟 군데의 머문 장소가 있었고 마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흘간 텐트를 침이 없이 행진하였다고 하였으니 총 열흘 동안 걸어가는 거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적어도 사십일 이상이 걸렸으니 이 거리는 각 지점에서 텐트를 치고 평균 만 삼일 이상 머무는 충분한 휴식 후 가진 진행이었음을 고려하면 비록 오차 범위가 다소 넓기는 하나 앞에서 정한 카테고리에 따르면 150~200 km 정도로 추측된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진 광야여정에서 시내산과 가까이에 위치한 장소들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가 용이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들과 관련된 우리의 지식은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해 성경의 내용들로부터 파악한 다음의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시내산의 위치를 추측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첫째,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00~400 kilometers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둘째, 시내산은 현재 수에즈 운하로부터 150~200 kilometers 거리에 위치한다.

셋째,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홍해까지의 거리는 후자에서 시내산 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

3.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⁹³

⁹³ 본 소고에서 이 부분은 주로 J.K. Hoffmeier, *Ancient Israel in Sinai: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Wilderness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24-140의 내용으로부터 발췌되고

시내산의 위치와 밀접히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광야 여정에 대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는 여러 전승들이 존재해 왔다.⁹⁴ 하지만 본 소고에서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들만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것들 역시 여러 전승들과 마찬가지로 학자 자신들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이스펠트(O. Eissfeldt)와 올브라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으로 약 35 kilometers 떨어져 있는 헬랄 봉우리(Jebel Helal)⁹⁵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 나일 삼각주의 동북쪽으로 난 길(소위 Via Maris)을 통해 가데스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⁹⁶

가데스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55 kilometers 떨어진 곳에 있는 카르콰 산(Har Karkom)은 아나티(E. Anati)에 의해 주장된 시내산으로 특히 유대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다. 그러나 아나티가 그곳에서 발견한 수 많은 고대인들의 거주 흔적과 특별히 출24:4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열두 기둥은 핀켈스타인(I. Finkelstein) 등이 지적한 대로 그 연대들이 출애굽 시기와는 동떨어진 것들이다.⁹⁷

이스라엘 프라이즈(Israel Prize)를 수상한 바 있는 저명한 성서지리학자 하르엘(M. Har-el)은 시나이 반도 중부에 위치한 신-비술 봉우리(Jebel Sin Bishr)를 시내산으로 본다. 이 산은 수에즈 운하의 남단에서 약 60 kilometers 떨어진 해변도시 라스 엘 세드(Ras el-Sedr)에서 동북쪽으로 약 30 kilometers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하르엘의 견해를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

요약된 것이다. 본 소고에 소개되지 않는 각 주장자들의 저작과 주장의 출처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에 대한 평가는 아래 각주들에서 제시되는 Hoffmeier의 책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라.

⁹⁴ Cf. G.I. Davies, *The Way of the Wilderness: A Geographical Study of the Wilderness Itineraries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4-61.

⁹⁵ 성경의 시내산이라고 주장되는 산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주로 아랍어로 전해지고 있다. 본 고에서 소개되는 지명은 주로 아랍어명의 영어 음역이다.

⁹⁶ J.K. Hoffmeier, p. 125. 아하로니도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는 지중해변의 세르보넛만 (Gulf of Serbonitis)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나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다고 본다. Cf.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trans. and ed. A.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9), pp. 195-200.

⁹⁷ J.K. Hoffmeier, pp. 125-126.

성은 시나이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비털 호수(Bitter Lake)를 건너 시나이 반도의 해안 가까이로 난 길을 따라 남하하다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 신-비술 봉우리를 지나 시나이 반도 중앙을 동북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그의 주장은 수에즈 운하 남단 근처에 위치한 비르 엘-무라(Bir el-Mura)와 20 kilometers 더 남쪽의 아운 무사(Ayun Musa; “모세의 샘들”이란 뜻)가 성경의 마라와 엘림이며 신-비술 봉우리만이 현재 시내산의 이름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산이러는데 근거한다. 그는 또 출3:18; 5:3; 8:27에서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시내산은 이집트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⁹⁸

이상의 주장들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내에 있다고 보는데 지난 세기 말부터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를 벗어난 곳에 있다는 여러 견해들이 기존의 전승들 외에 발표되었다. 왕상9:26 등에 근거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시나이 반도 동편의 아카바만이였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갈4:25에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말한 것 등을 근거로 비크(C. Beke; 1878년)와 루카스(A. Lucas; 1938년)에 의해 지금의 아카바/에일랏에서 동쪽으로 약 15 kilometers 거리에 위치한 비길산(Mt. Biggir)이 시내산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⁹⁹

블럼(H. Blum; 1998년), 코르눅과 홀브룩(R. Cornuke & D. Halbrook; 2000년) 등은 아카바에서 남쪽으로 120 kilometers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고대 미디안 지역인 현 사우디 아라비아의 서북부 해안에서 가장 높은 라우즈 봉우리(Jebel el-Lawz; 해발 2580 meters)를 시내산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앞의 비길산을 시내산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에 더하여 화강암인 산 정상에 검은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현현(Theophany) 시 불로 인해 그을린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주위에서 발견된 기둥들과 제단을 이 산이 성경의 시내산인 증거라고 한다.¹⁰⁰

또 한가지 특별한 주장은 출19:18; 24:17등을 근거로 시내산은 활화산이었다고 생각한 궁켈과 노트, 그레스먼(H. Gressman) 등의 영향으로 무실(A. Musil; 1925년)과 쾨니(J. Koenig; 1971년) 그리고 험프리스(C. Humphreys; 2003년) 등은 아라비아 반도 서부의 화산 지대에 있는 바들산(M. Badr 또는 Hala el-Badr)을 시내산이라고 보기도 했다.¹⁰¹

이상에서 소개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주장들은 그것들에 대한 뒷받침으로 제시되는 고고

⁹⁸ Ibid., pp. 126-128.

⁹⁹ Ibid., pp. 130-131.

¹⁰⁰ Ibid., pp. 132-136.

¹⁰¹ Ibid., pp. 131, 136-140.

학적 자료들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해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¹⁰² 그리고 이상의 주장들에서 제시된 시내산의 위치는 전 장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 정리한 조건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불가하다.

4.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된 몇 성경 구절들에 대한 이해

다음에서 우리는 시내산이 현대 국가 요르단의 남부에 있었던 고대 에돔 또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부인 고대 미디안 지역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본문 몇 곳을 본 소고의 주제를 따라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크로스(F.M. Cross)와 알스트롬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시 세 편에서 시내산과 병행하는 부분에 에돔 또는 그와 동일한 세일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내산이 이 지역에 있다는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 그럼 해당 구절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¹⁰³

[신33:2a]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וַיֹּאמֶר, יְהוָה מִסֵּיַי בָּא וַיִּזְרַח מִשְׁעִיר לְמוֹ--הוֹפִיעַ מִהַר פָּאֵרָן, וְאָתָּה מִרְבַּת קֹדֶשׁ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성도”로 번역된 마지막 단어 코데쉬(קֹדֶשׁ)는 칠십인 역이 반영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히브리 시의 특징인 병행법과도 맞게 장소의 이름 가데스(גִּדְדָּ) 즉 가데스 바네아로 봄이 타당하다. 바란은 창21:21; 민13:3, 26; 왕상 11:18 등을 볼 때 가데스 근처를 포함하는 가나안의 남쪽 시나이 반도의 광범위한 지역의 이름으로 볼 수 있겠다.¹⁰⁴

수12:7을 볼 때 고대에 “세일”은 사해 남단에서 아카바에 이르는 현재 아라바 지역의 동편만이 아니라 그 서편 즉 현재의 네게브도 포함하는 지명이었다. 민20:12-21에도 “세일”과 같

¹⁰² 이들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평가는 본 소고에서 다룬 영역이 아니다. 관심있는 독자는 위의 각주들에서 소개된 호프마이어의 책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라.

¹⁰³ Cf. F.M. Cross, *From Epic to Canon: History and Literature in ancient Israel*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p. 45-52; G.W. Ahlström, *Who Were the Israelite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pp.57-59.

¹⁰⁴ Cf.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p. 199.

은 지명임이 분명한 “에돔” 역시 한 때 시나이 반도 북쪽의 가데스 까지 미치는 지역의 이름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시내산이 세일과 병행해서 언급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꼭 현재의 요르단 남부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삿5:4-5]

-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구절들에서 표현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과 같으신 하나님이다.¹⁰⁵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는 사사기 5장의 내용 전체가 전쟁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며 4절에 “나오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נִצַּח는 구약 성경에서 120회 이상 사용된 바와 같은 전투를 하기 위해 나선다는 뜻이다 (cf. 출17:9; 민1:3, 22-42[작수 절]; 삿4:14; 삼상11:7; 18:16; 삼하22:37 등).¹⁰⁶ 본문의 내용을 아래의 시68:8-9[7-8]의 것과 비교해 보면

-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비를 떨어뜨리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삿5:4-5의 내용 중 () 부분이 없고, 4절의 “세일에서부터” 는 “백성 앞에서” 로, 같은 절의 “에돔 들에서부터” 는 “광야에서” 로, 그리고 시68에는 “여호와” 란 신명(神名)이 “하나님” 으로 바뀌어 있다.¹⁰⁷ 시편 68장도 사사기 5장과 같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니 성경의 이 두 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은 고대 이

¹⁰⁵ Cf. P.D. Miller, J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¹⁰⁶ Cf. H.D. Preuss, “נִצַּח” in *TDOT*, vol. 6, p. 229.

¹⁰⁷ 시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책 앞 부분(42-83장)에서는 “여호와”(30회 출현)란 신명 보다 “하나님”(164회)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Cf. 1-41장(여호와-272회; 하나님-15회), 84-89(여호와-31회; 하나님-7회), 90-150(하나님-0회; *시57과 시60의 결합인 시108 제외)

스라엘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 상(像)에 대한 전형적이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삿5:4-5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현현과는 관련이 없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곳이기 에 언급되는 세일 또는 에돔이 시내산과 동일한 지역임을 보이는 근거로는 더욱 주장될 수 없다.

[합3:3-7]¹⁰⁸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크로스는 위의 신명기, 사사기, 하박국에 담겨 있는 세 부분의 성경 구절들을 예시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would argue that these archaic songs that locate Yahweh’s movements in the southeast—in Edom/Seir/Teman/Midian/Cushan—are our most reliable evidence for locating Sinai/Horeb, the mountain of God.”¹⁰⁹

3절에 언급된 “데만”은 창36:31-34; 렘49:7, 20; 겔25:13; 암1:12; 읍9을 볼 때 현재 요르단 남부의 에돔 지역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란”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가르킨다. 7절의 “구산”은 성경에서 오직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기에 그것이 지명인지 아니면 부족의 명칭인지 정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지명이라면 “장막”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병행하는 미디안과 동일하거나 가까운 목축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문 학자들

¹⁰⁸ 위 각주 36에 소개된 책에서 크로스와 알스트림은 자신들이 하는 주장의 근거로 신33:2, 삿5:4-5과 함께 합3:3 만을 들었다. 그러나 H. Shanks, “Frank Moor Cross, An Interview, Part 1: Israelite Origins,” *BR*, August 1992, pp. 32, 61에서 크로스는 구약 종교의 기원에 미친 미디안 종교의 영향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는 시내산이 현재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주장의 성경적 근거로 신명기와 사사기의 두 부분과 함께 합 3:3-7을 든다.

¹⁰⁹ H. Shanks, p. 61.

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시리아의 북부를 의미할 수도 있다 (cf. “구산 리사다임” [삿 3:8, 10]).¹¹⁰

3절의 어구가 신33:2과 매우 흡사하기에 두 본문을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박국 1-2장과 3:8-15의 내용을 볼 때 하박국의 본문은 사사기 5장이나 시편68장과 같이 하나님을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위의 세 본문들이 하나님의 출현의 순서를 묘사하고 있다는 크로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시내산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갈 4: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중 노릇 하고

그러나 이 본문의 “아라비아”는 현재의 사우디 아라비아나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된 지역의 이름이 아니다. 헬라 시대부터 현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이 아라비아란 명칭으로 불렸다.¹¹¹ 주전 3세기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의 헬라이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창46:25의 “고센 땅”을 “아라비아의 고센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제 까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와 함께 여러 다른 주장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성경의 기술들을 앞 2장에서 정리한 바에 따라 조합해 보건대 그곳은 현 시나이 반도의 남부에 위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곳에는 기독교의 전승에 따라 시내산으로 여겨온 제벨 무사(Jebel Musa; 해발 2,285 meters))가 있는 곳이다. 이 산과 관련하여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전승은 이케리아(Egeria)라는 여인이 주후 381-384년 성지순례 중에 보낸 편지에 의해 확인된다.¹¹² 그러나 시내산에 대한 성경의 기술들을 보건대 훨씬 오래 전

¹¹⁰ Cf. D.W. Baker, “Cushan” in *ABD*, vol. 1, pp. 1219-1220.

¹¹¹ Arabian Peninsula, retrieved November 28,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Arabian_Peninsula

¹¹² 가장 최근의 영어 번역은 J. Wilkinson, *Egeria's Travels* (Oxford: Aris & Phillips, 2006)에서 읽을 수 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³

물론 시나이 반도 남부에 제벨 무사 외에 시내산이라 주장되는 산이 여러 개 더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제벨 또는 라스 사프사파(Jebel/Ras Safsafah; 해발 2,168 meters), 제벨 세르발(Jebel Serbal; 해발 2,070 meters), 제벨 카타리나(Jebel Katarina; 해발 2,637 meters) 등이다.¹¹⁴ 이중 제벨 사프사파는 제벨 무사를 동남쪽 끝에 갖고 있는 약 3.5 kilometers에 이르는 같은 산맥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우리가 산 아래의 에르-라하 평야(er-Raha plain)와 마주 보고 있음으로 해서 출19:2의 묘사와 잘 어울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봉우리가 바로 시내산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그곳이 정확히 시내산인지 혹 다른 곳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¹¹³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p. 199.

¹¹⁴ Cf. J.K. Hoffmeier, pp. 140-148.

정현호 목사의 "시내산 위치에 대한 성서적 고찰"에 대한 논찬

신 성 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시내산이 어디인지를 다루는 이 논의의 의미부터 간결하나마 잘 정의해준 글이다. 시내산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것 중 하나가 시내산과 호렙산의 지명 문제인데 이를 초반부에 다루어 준 것은 아주 적절한 접근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구약성서 본문에 근거하여 이 질문을 원만하게 설명해냄으로써 시내산 위치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일찌감치 제거해주고 있다.

광야여정과 관련된 구약 본문 기록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이른 결론은 시내산의 위치 찾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1)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00~400 kilometers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 2) 시내산은 현재 수에즈 운하로부터 150~200 kilometers 거리에 위치한다.
- 3)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까지의 거리는 후자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

이상의 기본적인 밑그림 하에서 발표자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발표문 3장)

마지막 장에서 발표자는 시내산이 현대 국가 요르단의 남부에 있었던 고대 에돔 또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부인 고대 미디안 지역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본문 몇 곳을 간략히 논하며 그들의 본문 이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본 논찬자는 발표자의 이해에 더하여 첫 번째 구절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신 33:2a הַהָּ מִסִּינֵי בָּא וְזָרַח מִשְׁעִיר לְמוֹ הוֹפִיעַ מֵהַר פָּאֵרָן וְאַתָּה מִרְבֹּת קֹדֶשׁ

b'	b	a'	a
a'	b'	b	a

발표자가 리베봇 코데쉬를 가데스로 즉 지명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문맥상 적절해 보인다. TNK번역처럼 Ribboth-kodesh로 곧 새로운 하나의 지명으로 보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이 경우

이 문장의 병행구조는 발표자가 소개하는 크로스과 알스트림의 a-a' b-b' (또는 a-a'-a''-a''') 보다는 a-b b'-a'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동사의 사용에 근거하는 것이다. 즉 **אֵת**와 **אֶתָהּ**를 같이 묶고 **וְהָרָחֵק**와 **וְהָרָחֵק**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시나이는 세이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 세이르와 하르 파란이 함께 가고 시나이는 카데쉬나 리베봇 코데쉬와 함께 가는 것이 된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하론 미르스키는 이 구절 주석에서 세이르가 시나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וְהָרָחֵק**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Da'at Miqra, Devarim, p. 476). 그렇게 보면 이 본문에서 세이르와 하르 파란은 동편에 시나이와 리베봇 코데쉬는 세이르와 하르 파란의 서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럴 경우 이 본문은 시내산이 고대 에돔이나 고대 미디안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서편에 위치함을 암시하게 된다.

본 논찬자가 내심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발표자의 전공 분야인 시편에 나타나는 시내산과 그 위치에 관한 부분이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과 의식에 남아 있는 시내산이 그들의 시편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그 시편 본문들이 제법 이 문제를 조명해줄 수도 있겠다는 바람이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훌륭한 연구에 감사를 표한다.

시내산은 어디인가?

시내산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강 후 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체험”이었으며, 이는 구약 성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과 함께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건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된다.

고고학적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역사가 아니었으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여러 제안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고찰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2. 시내산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인 고찰

2.1. 출애굽 시기와 출애굽 여정에 기록된 장소들

출애굽 시기의 장소들을 고고학적으로 파악하는데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출애굽 시기와 출애굽 여정에 기록된 장소들의 지명 확인(identification) 작업이며 이 둘은 상호관련이 있다.

출애굽 시기에 관련하여 주전 15세기 설과 13세기 설이 주장되고 있고 각각의 성서적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 시대의 여리고 도시 성읍이 파괴된 것(LB I, 주전 약 1400년)과 최근 이스라엘이 적혀진 것이라고 주장되는 비문 (주전 약 1400년)은 성서 구절의 근거(삿11:26, 왕상 6:1 등)는 분명 주전 15세기에 출애굽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주전 14세기의 가나안의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는 아마르나 문서들과 주전 13세 하반기까지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증거, 이후의 정착 변화와 물질문화의 변화, 메렌프타 비문 등은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은 주전 13세기에 가능하였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강후구 2010, 2015).

출애굽 여정을 파악하는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지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들에 대하여 성서적, 지리적, 고고학적 근거를 분명히 들어 지명 확인이 가능한 장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출애굽 여정 장소 들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곳이 이스라엘 밖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시내산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과 시내산을 떠난 후에 각각 정착하였던 장소들을 확인하는 일이 주요한데 이마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에 따른 분석에서는 숙곳, 광야끝에담, 바다와 므들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 도하,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 르비딤 (맛사, 프리바)- 르비딤전투, 이드로 방문, 시내 광야- 시내산, 다베라, 기브롯 하다아와-메추라기, 하세롯, 바란 광야, 신광야- 가데스(민20:1)- 미리암 죽음, 프리바 물, 호르산, 홍해 길을 따라 우회, 오봇, 이에아바람,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브엘, 맛다나, 나할리엘, 바뭇, 비스가산, 모압평지 등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3장에 따르면 출애굽 후 숙곳에서 아벨싯딤까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46장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곳 가운데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쳤던 36 장소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출애굽 시대의 정착지가 알려진 곳은 하나도 없다.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발굴된 장소가 가데스바네아, 에시온게벨 등 매우 소수가 알려졌고, 나머지 장소들은 지표조사에 의하여 알려지거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추정하여 알려졌을 뿐이다(홍순화 2012). 가데스바네아의 경우도 성서 구절을 바탕으로 출애굽 이후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출애굽 당시의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R. Cohen 1993)

2.2. 출애굽 당시의 정황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기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 여전히 이집트의 통치하에 있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여 이집트 19왕조, 심지어 제20왕조 초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집트의 세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벧샨의 이집트 통치자 거주 건물은 이집트 형식을 보여주며 건물에서 발견된 상형문자와 람세스 3세의 석좌상, 다량의 이집트 토기들은 분명한 이집트 거주를 보여주고 있다 (Building 1700과 Building 1500; Mazar 2006: 59-169). 므깃도에서도 람세스 3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 람세스 6세까지 이집트 세력이 주둔하고 있었음이 입상 발판이 발견됨으로 드러났다 (Shiloh 1993). 라기스와 텔 세라에서 드러난 건물과 발견물도 이를 뒷받침 한다(Singer 1994). 특히 라기스에서는 람세스 3세의 카르투쉬가 적혀 있는 청동 물품이 발견되었고(Ussishkin 2004: 1584-1588, 1626-1628), 텔 세라에서는 통치 제 22년을 언급하고 있는 오스트라콘이 발견되어 (Goldwasser 1984), 이 비문 글자에 맞는 시기 통치한 바로 가운데 22년을 할 수 있는 이는 람세스 3세밖에 없어, 남부지역에서도 람세스 3세 시기까지 이집트의 통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온 땅이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였을 때는 중요지역에 행정관을 두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다. 그러하기에 이집트는 많은 군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그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수의 이집트 군사를 파병할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다 (EA 55, EA 151 등, Moran 1992). 그것도 같은 곳은 방어하기 위하여 10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EA 244) 다른 곳은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고작해야 2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A 151, Moran 1992: 238-239). 이와 같은 사실은 가나안내에서의 이집트 지배 세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여전히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시기인 주전 13세기에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었던 메네프타가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을 원정하였다는 것은 (Pritchard 1950: 376-378) 거꾸로 이집트의 지배세력이 전 지역에 걸쳐서 행사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집트 지배 세력이 원정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면 왜 그가 원정을 하였겠는가? 따라서, 출애굽 당시, 시내반도가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 머물렀던 지역이었으므로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3. 메노라

김승학은 사우디에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저서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보여 주고 있다 (김승학 2007: 137, 144, 314, 324, 336, 362, 388, 394; 김승학 2014: 328, 342, 345, 354, 355). 이들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림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글자이다.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성서시대에 발견된 적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세기 때의 하스모니안 마지막 왕인 마타디아스 안티고누스의 동전에 나온 것으로 그것도 대략적으로 윤곽만 그려진 것이다 (Moshorer 1982: 87-97). 예루살렘의 야손의 무덤 벽에 묘사된 다섯 개의 대략적인 새겨진 메노라들도 하스모니안시대 또는 헤롯 시대로 편년되었다 (Rahmani 1967: 73-74). 주후 1세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편년된 것을 두 가지 들 수 있는 하나는 로마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메노라가 분명 장식되었고,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에서는 발굴을 통하여 1969년 아비가드에 의하여 발견된 두 개의 석회 조각에 새겨진 메노라가 있다 (Habas 2003). 후자의 것은 비록 부분이지만, 분명히 일곱가지를 가진 메노라가 삼각형 모양의 받침 위에서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지에는 꽃봉우리 모양을 가진 장식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Habas 2003: 329-332). 최근 막달라 지역의 발굴을 통하여 주후 1세기경의 메노라가 회당 건물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2.4. 솔로몬의 홍해 도하 기념 기둥?



사진 1-2. 솔로몬의 홍해 도하 기념으로 세워졌다는 누웨이바에서 발견된 둥근 돌기둥(사진제공: 홍순화)

김승학은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는 증거 가운데 홍해가 오늘날의 홍해이고 그 홍해 양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기념 기둥이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원형으로 된 기둥이 누웨이바와 하끝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누웨이바에는 원형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끝에서는 자리만 남아 있고 물에 잠겨져 있다고 사우디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다 (김승학 2007: 99-119, 232-237, 234의 사진). 지금까지의 발굴 가운데, 솔로몬 시대 때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것은 없다. 또한 그 당시의 궁전이나 행정 건물을 볼 때에 기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발견된다 (Reich 1992, Herzog 1992). 다만,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으나, 주전 10세기 때 이후부터 사용된, 기둥으로 때 받쳐지는 기둥 머리가 발견되었는데, 곧 원시 이올리안 주두(柱頭) (Proto-Aeolic capital)이다 (Shiloh 1979, Mazar 1990: 426-427). 기둥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두들이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어 만약 기둥이 있었다면 그 모양이 네모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Reich 1992: 213. Fig. 10; Mazar 1990: 475, Fig. 11.8 을 보라).

한편 구약 시대에 원형 기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두 기둥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솔로몬 성전과 가장 유사한 엔다라 신전과 타이낫에서의 신전은

본 건물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장소에서 원형 기둥 받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Moson 2000, Mazar 1990: 375-378).

가나안 지역에서도 원형 기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안 시대의 하술의 Area A에서와 Area H에서 발견된 신전들은 모두 본 건물 앞에서 둥근 기둥 받침을 지니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이전에 둥근 기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Mazar 1990: 248-249).

위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약 시대에 원형 기둥이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은 기둥 받침만 발견되었고 그 위에 돌로 된 둥근 기둥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둥근 돌기둥이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둥근 돌기둥이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 파괴자에 의하여 이동되어졌다면 그것이 이차적으로 사용되었을 터인데 그러한 증거는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둥근 기둥이 사용되었지만, 모두 나무로 된 기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학이 솔로몬 시대의 원기둥이 주로 사용된 시대는 로마 시대 이후의 것으로 그의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둥의 모습(김승학 2007: 234)을 보아서도 로마 시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누웨이바에서 발견된 둥근 돌기둥의 사진을 본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인 바이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것은 로마 또는 초기 비잔틴 시대의 기둥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거의 하나의 선으로 잘랐으며, 위쪽에는 기둥 머리(capital)를 얹기에 맞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고고학적 문맥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부근 가까이에 있는 장소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 경우, 나는 그것이 주후 3세기에서 그 이후의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마도 주후 4-6세기 경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편년은 비록, 로마 자국내에서는 더 일찍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화강암 기둥이 등장하기 시작한 대략적 연대이다.”

그에 따르면, 화강암으로 된 이 돌기둥은 주후 3-6세기 경의 후기 로마시대-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그 부근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6. 타무딕 비문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증거 중 메노라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 중 하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바위에 새겨진 비문이다 (김승학 2014: 342, 355). 그것은 타무딕(Thamudic) 글자로서 바위위에 새겨진 것이다. 이 타무딕 비문은 이슬람 이전 시대의 고대 북아랍어 비문이며, 그것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맥도날드와 킹에 의하면 주전 8세기경부터 사용

되기 시작하여 주전 3세기경까지 사용되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주전 4/3세기-주후 3/4세기이다. 이 언어는 28개 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바위나 야석 위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타무딕 비문은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고대 비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결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원시-가나안어 또는 가나안어를 차용하여 글자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히브리어로 발전하여 사용하였다. 산악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키르벳 라다나 비문, 이후 사사 시대 비문들: 이즈벳 차르타(에벤에셀) 비문, 벳세메스 비문, 화살촉에 새겨진 비문, 크파르 베라딤 비문, 르바딤에서 발견된 비문, 라기스 대접비문, 마나핫 비문 등은 글자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가나안어의 전통을 따른 것이며 이후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용된 숫자는 더 늘어났으나 이 전통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주전 10세기 하반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글쓰는 방향이 통일되어 나타나 이후의 모든 비문들이 그 방향을 따르고 있다 (강후구 2012a, 2012b).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인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였던 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의 비문이며, 이 비문의 증거를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2.7. 토기

떨기나무 저자는 본문 중에서 미디안 광야의 유물 가운데, 유일하게 토기 사진 한 장을 보여 주고 있다 (본문 170쪽). 이 토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눈금자가 없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저장용 항아리 (storage jar) 이던지 아니면 외손잡이 단지 (jug)이던지 이들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토기가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해 본다면, 그것은 토기의 목부분과 몸체부분이 연결된 토기 조각으로 목 아래쪽에는 수평으로 몇 줄의 새겨진 선들이 있고 그 아래 쪽에는 다섯 줄의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와 비슷한 장식이 토기벽 두께 자체가 두껍고 매우 큰 항아리 (pithos)에 물결무늬가 초기 철기 시대 (주전 1200-1000년)에 두로의 영향을 받아 팔레스틴에서는 도르등지에서 발견이 되었으나, 그 형태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떨기나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 비잔틴 시대 또는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McNicoll et al. 1982, 1992, Amiran 1969를 보라) 출애굽 시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미디안 지역의 토기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출애굽 당시 미디안에서는 오히려 채색된 토기가 사용되었다 (Amiran 1969).

3. 나오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 출애굽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고학적 증거는 미디안 토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적들을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구약 시대와는 관련이 없는 후대의 증거들이며, 출애굽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하여 이후 더 발굴과 지표조사가 필요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성서적, 생태적, 지리적, 역사적 증거물을 통한 간접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강후구. 2010.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땅 정착, *성서마당* 94호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91-103.
- 강후구. 2012a. 고문서적 증거를 통하여 살펴본 고대 이스라엘 역사 (1): 주전 12-11세기. *성서마당* 101호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강후구. 2012b. 고문서적 증거를 통하여 살펴본 고대 이스라엘 역사 (2): 주전 10-9세기. *성서마당* 102호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강후구. 2015 (예정).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에서 시삭의 침공까지*, 서울장신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총서. 광주: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 김승학. 2007. *떨기나무*. 서울: 두란노.
- 김승학. 2014. *떨기나무 2*. 서울: 생명의말씀사.
- 홍순화. 2012. *GPS성경지명사전*. 서울: 한국성서지리연구원.
- Aharoni, Y. 1967.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London: Burns & Oates.
- Albright, W.F. 1925. "Topographical Researches in Judaea". *BASOR* 18: 6-11.
- Amiran, R. 1969. *Ancient Pottery of the Holy Land: from its beginning in the Neolithic period to the end of the Iron Age*. Jerusalem: Massada Press.
- Cohen, R. "Kadesh-Barnea: The Israelite Fortress". *NEAEHL* Vol. 3. Jerusalem: The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843-847.

- Dever, W.G. 1993. "Gezer" in *NEAEHL*. Vol. 2. Jerusalem: The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496-506.
- Gitin, S. and Dothan, T. 1997. "A Royal Dedicatory Inscription from Ekron". *IEJ* 47: 1-16.
- Goldwasser, O. 1984. Hieratic Inscriptions from Tel Sera` in Southern Canaan. *TA* 11: 77-93.
- Graf, D.F. 1992. "Nabateans"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Doubleday. pp. 970-973.
- Habas, L.-H. 2003. "Ch.12. An Incised Depiction of the Temple: Menorah and Other Cult Object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in Geva, H. ed.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329-342.
- Herzog, Z. 1992.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the Iron Age" in Kempinski, A. and Reich, R.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223-230.
- Huddleston, J.R. 1992. "Red Sea"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pp. 633-642.
- MacDonald, M.C.A. and King, G.M.H. 2000. "Thamudic" in *Encyclopaedia of Islam*, Leiden: Brill. pp. 436-438.
- Mazar, A. 1990.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Doubleday.
- Mazar, A. 1997. *Timnah (Tel Batash) I: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Qedem 37.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azar, A. 2006. *Excavations at Tel Beth-Shean 1989-1996. Vol. 1. From the Late Bronze Age IIB to the Medieval Period*. Israel Exploration Society &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azar, B. 1953. "The Campaign of Sennacherib in Judea". *Eretz-Israel* 2: 170-175.
- Meehl, M.W., Dothan, T. and Gitin, S. 2006. *Tel Miqne-Ekron Excavations 1995-1996: Field I NE East Slope Iron Age I (Early Philistine Period)*. Jerusalem.
- McNicoll, A.W. et al. 1982. *Pella in Jordan 1: An Interim Report on the joint University of Sydney and Tel College of Wooster Excavations at Pella 1979-1981*. Canberra.
- McNicoll, A.W. et al. 1992. *Pella in Jordan 2: The Second Interim Report of the joint University of Sydney and College of Wooster Excavations at Pella 1982-1985*. Sydney: Mediterranean Archaeology Supplement 2.

- Moran, W.L. 1992.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son, J.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BAR* 26.3: 20-35, 67.
- Moshorer, Y. 1982. *Ancient Jewish Coinage*. Vol. I. *Persian Period through Hasmonaeans*. New York.
- Pritchard, J.B. 1950.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hmani, L.Y. 1967. "Jason's Tomb". *IEJ* 17: 61-113.
- Reich, R. 1992.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in Kempinski, A. and Reich, R.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202-222.
- Shanks, H. 2012. When Did Ancient Israel Begin?. *BAR* 38.1: 59-62, 67.
- Shiloh, Y. 1993. "Megiddo" *NEAEHL* Vol. 3. Jerusalem: The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1012-1024.
- Singer, I. 1994. "Egyptians, Canaanites and Philistines in the Period of the Emergence of Israel" in Finkelstein, I. and Na`aman, N. eds. *From Nomadism to Monarchy: Archaeological & Historical Aspects of Early Israel*. Jerusalem: Yad Izhak Ben-Zvi. pp. 282-338.
- Ussishkin, D. 2004.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vols. I-IV.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 van der Veen, P, Theis, C., and Görg, M. 2010. Israel in Canaan (Long) Before Pharaoh Merneptah? A Fresh Look at Berlin Statue Pedestal Relief 21687. *Journal of Ancient Egyptian Interconnections* 2: 15-25.
- Wolf, C.U. 1971. *The Onomasticon of Eusebius Pamphili: Compared with the Version of Jerome and Annotated*.

Appendix

임 미 영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은 비단 오늘의 주제만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의 조사와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 수수께끼 가득한 장소를 찾는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모험 중 가장 최근 그리고 특별히 국내에서 큰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당연히 김승학 집사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보수성은 이미 알려진 의견에 사족을 달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을 때 받아드리고 수정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진 시내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새로운 시내산을 제시한 김승학 집사의 『떨기나무』는 한국 기독교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본서에,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의 오랜 경험과 신앙적 의지뿐만 아니라 성서적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학과 고고학을 전공한 저자 역시 그의 책을 읽으면서 긴장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만을 할 수는 없었다.

사실 현재 알려져 있는 시내산 외에 다른 곳을 제시한 사람은 그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지리적, 성서적 고찰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논쟁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강후구 박사 역시 고고학적으로 시내산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증거와 논쟁을 충분히 펼쳤다. 다만 저자는 고대중동지역을 전공한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1. 지명학적 자료

고고학은 분명 과학이다. 그러나 고고학은 인간의 습성과 생활의 흔적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보니 때로는 과학적 사고보다 인간적 사고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가 지명학(Toponymy) 자료이다. 지명학이란 어원학적, 역사적, 지리적 정보에 입각하여 지명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Rainey and Notley 2006: 14). 한 지역의 독특한 이름은 지형적인 정보를 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기도 한다. 이러한 이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원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의 이름은 사용 언어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했다. 지명학적 자료를 손에 들고 성서의 지

역들을 찾아낸 로빈슨과 스미스(Robinson and Smith 1867; Williams 1999) 등의 학자들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역의 이름에 전통과 전설 그리고 역사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덕분에 시내산을 탐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름에 집착 했었다. 모세에 관련된 이름이 붙은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시내산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 결부시켜왔다. 아랍어 제벨 무사는 자연스럽게 모세의 산이 되었고 『떨기나무』에서 강조한 와디 무사 역시 모세와 관련되어 있다. 김승학 집사의 아랍어에 대한 지식과 지명학적 자료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의 논쟁을 풍부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벨 무사의 경우 혹은 모세와 관련된 전설적 이름이 연상되는 지역의 경우 이 지명학적 자료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코란에 등장하는 무슬림의 예언자 중 하나이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만큼 무슬림에서 모세의 이름은 중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나이반도의 시내산은 현재 제벨 무사라고 불린다.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에도 제벨 무사가 있다. 모로코에 있는 제벨 무사를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분명 어려운 일일 것이다. 홍해 역시 문제가 있다. 히브리어의 *yam suph*(갈대 바다<혹은 물이 모여있는 곳>)가 70인역에서 홍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큰 바다를 건넌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시나이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홍해는 남녀노소 모두 합쳐 250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더불어 이집트 군대가 마차를 끌고 쫓아오기에도 여기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험란하여 도저히 이곳을 성서의 *yam suph* 라고 보기가 어렵다. 물론 론 와이어트의 조사에 의하면 이 홍해의 밑바닥에서 그는 이집트 군대의 것으로 보이는 병거 바퀴들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퀴는 이집트만이 사용한 모양은 아니다. 더불어 바퀴의 정확한 연대가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떨기나무』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각 지역에 남겨 있는 전설을 찾아가는 것은 그 장소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스라엘 내 많은 유적지들 역시 전설이나 장소의 이름에 의존해 발굴되곤 한다. 강후구 박사가 앞서 언급했던 에그론의 경우처럼 여러 유적지에 담겨있는 역사적 전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이스라엘 유적지의 상당수가 비잔틴 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의 아래를 발굴했을 때 드러나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유적들을 볼 때 비잔틴 전통(Davies 1990)이 담겨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의 위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고고학적 자료

안타깝게도 시내산의 후보로 거론되는 어디에서도 그 장소가 정답이라는 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그 어떤 장소의 자료 보다 김승학 집사가 라오즈 산과 주변을 통해 제시한 고고학적 자료가 오히려 많은 숫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 제

시된 자료들이 라오즈산을 시내산으로 믿을 수 있게 할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료들 속에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강후구 박사가 제시했던 것처럼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지역의 문자보다는 기원전 8-7세기 발전한 북동 아랍어와 유사하다. 문자적 혼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찾을 수 있다면 저자는 오히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세라빗 엘 카담(Serabit el-Khadim)을 지나가는 여정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세라빗 엘 카담은 이집트의 터키 광산이 위치해 있던 장소로 이곳에서 주로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가나안어 문자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시나이어를 기록했다(Flinders Petrie 1906; Gardiner 1916: 1-16; Albright 1966: 1-3). 그들은 누구보다 이 지역까지 오는 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지형 역시 익숙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집트를 출발한 잡다한 민족은 뒤따라 올 이집트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이집트의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지중해변을 따라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험란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길을 선택했을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남쪽 세라빗 엘-카담을 지나쳐 갔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시나이 반도 남쪽까지 이집트의 영향력은 시사되지 않고 있다. 세라빗 엘-카담에서 발견되는 비문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타무딕 비문과는 문자의 모양이 다르며 오히려 히브리 문자 즉 가나안 어 문자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여전히 비문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누웨이바에 서 있는 솔로몬 홍해 도하 기념 기둥과 기둥에 기록된 비문을 본 적이 없는 저자로서는 비문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문자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는 없다. 더불어 비록 론 와이어트에 의해 사진이 찍히기는 했으나 한때 홍해 건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또 다른 기둥은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다. 론 와이어트는 이 기둥에 고대 히브리어로 이집트(미쯔라임),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 모세, 그리고 야훼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어디에도 사진이 없어 증명할 길이 막막하다.

비문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암각화이다. 우리는 구약시대 메노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강후구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제시된 메노라는 오히려 기원후 1세기경 시작된 전통적 메노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후대에 이 지역을 방문했던 유대인 중에 이 장소가 모세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메노라를 바위위에 조각하였는지도 모른다. 김승학 집사가 우연히 모세에 관련된 그림(이 그림은 중세시대의 그림으로 보인다. 히브리어 문자 역시 후대의 것이다)을 예멘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처럼 예멘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만약 라오즈산이 시내산이었다면 그들의 전통에 의해 성지순례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왕국시대 말과 병거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저자에게 미디안 광야의 암각화는 더욱 흥미로운 것이었다. 만약 암각화와 비문이 동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암각화는 오히려 비문이

기원전 8-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궁수와 마부가 서 있는 병거의 몸체는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다. 몸체의 양쪽 끝은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몸체의 윗부분이 약간의 곡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거의 몸체는 18왕조 이집트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원전 8세기 앗수르의 병거(그림 우)와 유사하다. 앗수르 병거의 몸체 앞쪽에는 몸체 보다 키가 큰 화살을 넣는 통이 있고 뒤쪽 끝 역시 튀어나와 암각화에서 묘사된 병거 몸체와 유사하다. 이집트 병거(그림 좌)의 몸체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 아취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체 자체가 상당히 작다.



더불어 궁수의 자세도 흥미롭다. 궁수는 그의 활을 앞이 아닌 뒤를 향해 겨누고 있다. 저자는 이집트의 병거 그림 중 활을 뒤로 쏘고 있는 이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기원전 8세기 앗시리아의 왕들 중에는 사냥 중 후방으로 화살을 쏘는 이들이 있다. 병거 앞에는 말을 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보인다. 병거를 끄는 것보다 기마를 하는 것은 보다 어려운 기술을 요했고 숙련된 자들만이 기마병이 될 수 있었다. 기마의 자세는 전쟁 중 활과 창을 쏘는데 있어 병거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것이었다. 고대에 있어 말은 전쟁 중 왕과 군대의 병거를 끄는 값비싼 동물이었다. 덕분에 말의 등에 올라타게 된 것은 앗수르에서 기원전 8세기에 와서야 가능했으며 기원전 7세기에 가서야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Littauer and Crouwel 1979: 131). 그러므로 이 암각화의 그림은 비문과 함께 기원전 8세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매일 갈아 먹었을 것으로 제시된 멧돌은 고고학적 자료 중 가장 그 시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다. 매일의 일상에서 곡식을 갈아 먹었던 고대인들의 멧돌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재료(예를 들어 현무암)와 유사한 기술(멧돌 위 짍을 아래 짍 위에 놓고 두드리거나 돌리는 형태)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안타깝게도 김승학 집사가 제시한 멧돌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사용했다는 증거도 또한 출애굽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시나이 반도의 제벨 무사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으로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왔다. 그러나 이 장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걸린 적은 없었다. 이는 고고학적 자료도 성서학적 자료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승학 집사는 밥 코르눅과 론 와이어트 등의 이론을 수렴하여 보다 성서학적 지명을 따라 찾게 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을 시내산으로 주장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의 노력은 그 누구보다도 높게 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고학자로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는 먼저 성서 즉 문헌적 자료를 찾고 이에 걸 맞는 유물이나 유적이 있음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 때 성서고고학의 선구자로 불렸던 알브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먼저 성서학적 자료에 근거를 삼고 이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냈다. 만약 한 지명의 의미가 성서적 장소와 유사하다면 유적은 이 성서적 장소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발견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서적 해석이 가미되어야 했다. 덕분에 비잔틴 시대의 유물이 때로는 구약시대의 유물로 읽히기도 했고 성서와 관련이 없는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속 도시로 판명되기도 했다. 고고학은 인간의 흔적이나 습성이 남겨진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연구하고 그것을 역사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은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문헌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문헌의 내용들이 고증되는 것이다. 결국 고고학은 여전히 과학이기 때문이다.

시내산의 위치는 여전히 숙제다. 보다 많은 고고학적 자료의 발견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숙제를 시작하게 한 김승학 집사에게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참고 사이트

론 와이어트 자료. <http://www.wyattmuseum.com>

참고문헌

김승학. 2007. 떨기나무. 서울: 두란도

김승학. 2014. 떨기나무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Albright, W. F. 1966. *The Proto-Sinaitic Inscriptions and Their Decipher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3.

Davies, G.I. 1990. The Wilderness Itineraries and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Pp. 161-175 in Emerton J.A., ed. *Studies in the Pentateuch, VT Supplements* 41. New York: E.J Brill.

Gardiner, A. H. 1916. "The Egyptian Origin of the Semitic Alphabe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 1916: 1-16

Littauer, M.A. and Crouwel, J.H. 1979. *Wheeled Vehicles and Ridden Animals in the Ancient Near East*. Leiden/Köln: E.J. Brill.

Petrie, W.M. Flinders. 1960. *Researches in Sinai*. London: J. Murray.

Rainey, A. and Notley, S. 2006.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Robinson, E. and Smith, E. 1856. *Later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 and in the adjacent Regions. A Journal of Travels in the Year 1852*. London: J. Murray.

과학과 학문의 모양으로 신념을 객관화하기

김 동 문 (나들목교회 선교담당)

들어가는 글

이 글은, 김승학 님의 글에 대해 반응하는 글이 아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승학 님 등이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시내산 주장에 대하여, 과학과 학문의 모양으로 꾸며진, 과학적이지도 학문적이지도않는, 신념의 주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사우디아라비아시내산 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학 님의 주장에 대한, 강후구 박사과 임미영 박사의 발제글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글이다. 발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짧게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고자 한다.

1. 강후구 박사의 글에 대하여

강후구 박사는, 그의 발제에서, 김승학 님이 라오즈산 시내산 설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고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메노라. 김승학 님은,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암각화를, 이 사우디에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그 근거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강후구 박사는,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성서시대에 발견된 적은 하나도 없다....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고 지적한다. 필자도 같은 이유로 김승학 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솔로몬의 홍해 도하 기념 기둥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에 관련하여, “그 기둥은 로마 시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고 강후구 박사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인 바이스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화강암으로 된 이 돌기둥은 주후 3-6세기 경의 후기 로마시대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그 부근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고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타무딕 비문. 김승학 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내산이 있다는 증거 중 메노라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 중

하나로,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바위에 새겨진 비문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와 관련하여, 강후구 박사는, 타무딕 글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주전 4/3세기- 주후 3/4세기이다. 이 언어는 28개 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바위나 야석 위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타무딕 비문은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인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였던 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의 비문이며, 이 비문의 증거를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도 동의한다.

토기. 김승학 님은, 미디안 광야의 유물 가운데, 유일하게 토기 사진 한 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후구 박사는, “떨기나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 비잔틴 시대 또는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McNicol et al. 1982, 1992, Amiran 1999 보라) 출애굽 시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미디안 지역의 토기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출애굽 당시 미디안에서는 오히려 채색된 토기가 사용되었다.” 고 비판하고 있다.

강후구 박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고고학적 증거는 미디안 토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적들을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고 결론을 맺고 있다. 강후구 박사는 발제문의 말미에,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하여 이후 더 발굴과 지표조사가 필요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성서적, 생태적, 지리적, 역사적 증거물을 통한 간접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고 언급한다. 여기에 더하여,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필자는, 고대 근동 가운데, 출애굽 사건과 지리적, 정치적 상관관계에 있는 국가와 지역의 지역학의 흐름과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2. 임미영 박사의 글에 대하여

임미영 박사님의 아래와 같은 언급이 눈길을 끈다. “아마도 이것은 본서에,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의 오랜 경험과 신앙적 의지뿐만 아니라 성서적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학과 고고학을 전공한 저자 역시 그의 책을 읽으면서 긴장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만을 할 수는 없었다.”

임미영 박사는 크게 지명학적 자료의 입장에서, 고고학적 자료와 관련한 두 가지 관점에서 김승학 님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2.1. 지명학적 자료

“한 지역의 독특한 이름은 지형적인 정보를 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기도”

하기에 의미가 있다. 김승학 님도 이런 의미에 주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하여, 자연스럽게 못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

임미영 박사는, 김승학 님이 언급한 출애굽의 홍해(오늘날의 아카바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나이반도와사우디아라비아사이의 홍해는 남녀노소 모두 합쳐 250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더불어 이집트 군대가 마차를 끌고 쫓아오기에도 여기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험란하여 도저히 이곳을 성서의 *yam suph* 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 홍해의 밑바닥에서 그는 이집트 군대의 것으로 보이는 병거 바퀴들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퀴는 이집트만이 사용한 모양은 아니다. 더불어 바퀴의 정확한 연대가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2.2. 고고학적 자료

임미영 박사는, “안타깝게도 시내산의 후보로 거론되는 어디에서도 그 장소가 정답이라는 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그 어떤 장소의 자료 보다 김승학 집사가 라오즈 산과 주변을 통해 제시한 고고학적 자료가 오히려 많은 숫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 제시된 자료들이 라오즈 산을 시내산으로 믿을 수 있게 할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료들 속에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는 지적에 대해서, 필자는 선뜻 동의가 되지를 않는다. 임미영 박사가 생각하는, 김승학 님의 주장 중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고, 임미영 박사가 글에서 언급한 몇 가지 오류 외에 다른 오류들은 없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무딕 비문.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지역의 문자 보다는 기원전 8-7세기 발전한 북동 아랍어와 유사하다. 문자적 흔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찾을 수 있다면 저자는 오히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세라빗 엘 카딤(Serabit elKhadim)을 지나는 여정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는 임미영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김승학 집사가 언급하고 있는 다른 출애굽의 현장에 대한 주장들은, 일관성을 뒷받침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문. “여전히 비문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누웨이바에서 있는 솔로몬 홍해 도하 기념 기둥과 기둥에 기록된 비문을 본 적이 없는 저자로서는 비문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문자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는 없다. 더불어 비록 론 와이어트에 의해 사진이 찍히기는 했으나 한때 홍해 건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또 다른 기둥은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다. 론 와이어트는 이 기둥에 고대 히브리어로 이집트(미쯔라임),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 모세, 그리고 야훼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어디에도 사진이 없어 증명할 길이 막막하다.” 고, 임미영 박사는 밝히고 있다.

암각화. “비문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암각화이다. 우리는 구약시대 메노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강후구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제시된 메노라는 오히려 기원후 1세기경 시작된 전통적 메노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후대에 이 지역을 방문했던 유대인 중에 이 장소가 모세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메노라를 바위위에 조각하였는 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추정이 상호 관련성이 적은 추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김승학 님이 예멘에

서 만난 유대인의 유물(?)속에서 봤다는 히브리어 문자에 대해서도 확인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기록(?)과 라오즈산의 시내산 설에 대한 주장과의 상관관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미영 박사의 글에서 눈길을 끈 것은, 미디안 광야의 암각화에 조금 더 친절한 비평을 가하고 있다. 만약 암각화와 비문이 동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암각화는 오히려 비문이 기원전 8-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궁수와 마부가 서 있는 병거의 몸체는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다. 몸체의 양쪽 끝은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몸체의 윗부분이 약간의 곡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거의 몸체는 18왕조 이집트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원전 8세기 앗수르의 병거와 유사하다. 앗수르 병거의 몸체 앞쪽에는 몸체보다 키가 큰 화살을 넣는 통이 있고 뒤쪽 끝 역시 튀어나와 암각화에서 묘사된 병거 몸체와 유사하다. 이집트 병거의 몸체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 아취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체 자체가 상당히 작다. 더 불어 활을 앞이 아닌 뒤를 향해 겨누고 있는 궁수의 자세도 언급한다. 이집트의 병거 그림 중 활을 뒤로 쏘고 있는 이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는 근거위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병거 앞에는 말을 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을 주목하며, 말의 등에 올라타게 된 것은 앗수르에서 기원전 8세기에 와서야 가능했으며 기원전 7세기에 가서야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이 암각화의 그림은 비문과 함께 기원전 8세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 이라고 잘 정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왕국시대 말과 병거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임미영 박사의 관점이 돋보인 대목이다. 이런 임 박사의 언급은 강후구 박사의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 필자에게는 유익한 내용이였다.

임미영 박사는, 다시금 김승학 님의 맷돌 주장에 눈길을 둔다. “안타깝게도 김승학 집사가 제시한 맷돌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사용했다는 증거도 또한 출애굽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고 밝힌다. 그런데 이런 논증을 끌어가는 논지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 출애굽 당시, 그 시점이 주전 13세기 후반의 경우라 할 때, 당시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맷돌을 모양은 김승학 님이 주장하는 맷돌 형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맷는 말

진짜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여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과제이다. 아쉬운 것은,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집트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남방지역 등의 지역학 자료들에 무관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장 답사보다, 문헌 연구 중심으로 구약 연구, 출애굽 논의가 주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현장 검증이 없는 논의는 결국, 신념에 바탕을 둔, 끼워 맞추기식의 출애굽 시내산 논란의 토대가 되었다. 떨기나무가 처음 출판된 2007년, 한 언론매체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곤 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것은, 전문 학자 집단의 반응이였다. 필자는, 당시 신학자들 가운데, 심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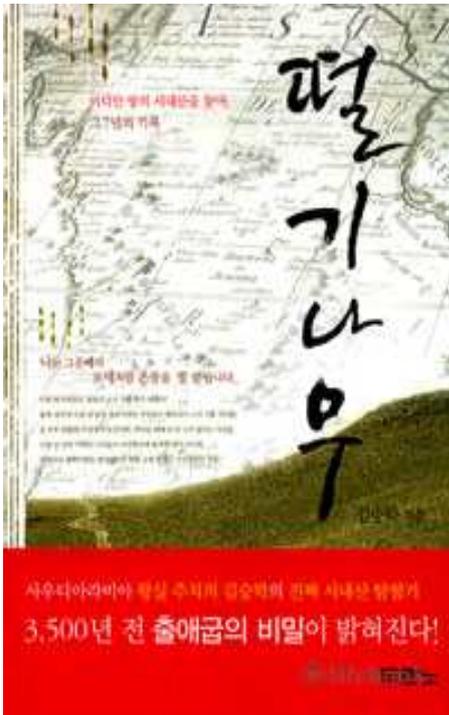
구약학자들 가운데도 떨기나무 저자의 부족한 논거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비판하기보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쉬웠다.

뒤늦었지만, 시내산 위치를 둘러싼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이나 논의들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필자의 역할이 김승학 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필자의 별도의 반론은 이 글에 담지 않았다.



<떨기나무>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떨고 계신 이들에게

김 동문(요르단 암만)



"혹시 <떨기나무> 읽어보셨어요? <떨기나무>에서 주장하는 바를 따라 성지순례 여정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메신저에 접속한 한 후배가 던져온 질문이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출애굽여정을 가지고 특강을 몇 주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는 포기상태입니다..."는 후배 사역자의 빠른 답변을 부탁하는 이메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떨기나무를 관심 있게 읽어보았기에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다면 한 권 보내고 싶다는 후배 사역자의 친절한 이메일도 있었다.

잠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지난 2007년 6월 책 <떨기나무>에 대해 전해 들었다. 출애굽에 관심이 많던 나는 '무슨 책일까?' 궁금하고 궁금하여 LA의 두란노 서점을 찾았다. 새책 코너에 책이 전시되어 있었다. 너무 궁금했다. 그러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넘쳐나는 실망감을 맞이하여야 했다. 이미 인터넷상이나 서구에서 센세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보도되고 방송 전파를 탔고, 책으로 소개되었던 그 주장의 한글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몇 개의 서평을 접했다. 뉴스엔조이에 실린 이국운 교수의 서평과 <빛과 소금> 7월 호에 실린 북칼럼리스트로 소개된 나관호 목사의 서평이었다. 그러나 이국운 교수의 글이 서평의 성격을 잘 살려주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것에 오랫동안 주저함이 있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혹시나 한국에서 일고 있는 <떨기나무> 열풍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다. 다빈치 코드 뒤집어 읽기나 바로 읽기 같은 글은 나름대로 시사성도 있고, 독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글이겠지만 <떨기나무 바로 보기> 같은 류의 글은 큰 의미나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후배 사역자들의 답답함이나 충격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지난 8월 하순에는 직접 책을 전해 받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떨기나무>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떨기나무>의 저자가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기에 그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학적 근거로 논쟁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만 저자가 성경본문을 활용하고 있기에 저자의 성경 인용과 해석이 적절한지를 본문의 맥락과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먼저는 이국운 교수의 서평과 저자가 <교회와 신앙>(2007년 6월 25일자) 인터뷰 기사에 나오는 저자의 주장에 드러나는 저자의 논점과 관심사를 평가하고, 다음으로 저자의 라우즈 산 시내산 설의 몇 가지 주요 논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고고학적, 역사적 비평은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이 글을 쓰는 것이 기존의 시내산(자발 무사) 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지금의 상품화된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출애굽 여정 모두가 성서지리학이나 성서고고학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가기 힘든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사건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할 장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1. 왜 떨기나무가 관심을 끌고 있는가?

<떨기나무> 같은 책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최소한 몇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출애굽 설교나 성경 연구가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비역사화된 (논리나 주장에서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해석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출애굽 강해서를 쓰시는 분들이나 모세 5경을 다루는 전문가에 속하는 분들에게서조차 그런 인상을 가져야 했다. 책이나 논문 등의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세우고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그것이, 그 주장들이 사실인지 하여 현장을 밟고 현지의 자료나 정황들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많지 않았다. 자료 평가를 통해 다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과 주장들을 여과 없이 선택해왔던 것이 일부 사실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성지순례가 '순례'였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학대학원의 성지답사팀들은 물론 다수의 목회자들의 성지 방문은 차별성 없이 제공되는 성지 프로그램을 따라 이뤄진 일정이었다. 거기에는 역사 탐구에 대한 열정이나 진지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 지중해 여행 상품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거의 차별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성지순례를 위한 성지순례를 진행해온 측면도 적지 않았다. "성지 여행을 하면서 종종 느꼈던 것처럼 그곳이 정말 역사적 장소가 맞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보면서 성경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해보"는 노력이 사실이 현장성이 부족했고, 현장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받고 논증하는 것에 무기력했다.

탐사보도나 역사 추리물이 안겨주는 흥미와 뒤집어보기에 익숙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힘을 받은 것 같다. 이 책은 곳곳에서 긴장감을 안겨주는 '위험을 무릎 쓰고' 이 탐사가 진행되었다는 식의 표현들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떨기나무>는 읽음직하고, 생각해봄 직하며, 새로운 확신을 가져봄 직하게 잘 짜여 지고 편집된 책이다. 출판사의 정교한 편집 손길이 느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출판사의 편집 기획력의 탁월함과 대형교회의 자체 서점을 중심으로 배분에 마음을 쓴 것으로 보이는 등의 책 소개 활동도 책을 보급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나 설교의 부재, 현장 답사나 현장 검증을 위한 성지순례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떨기나무> 같은 책에 떨고 있는 사연일 수 있다.

<떨기나무>의 저자는 그의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위에서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의 중요한 문제제기의 근거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닌 9가지 이유” (pp. 398-402)와 “진짜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8가지 이유” (pp. 402-406)에서 엿볼 수 있다. 그 근거 본문으로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옮겨본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닌 9가지 이유

1. 시나이 반도의 당시에 애굽의 땅이었다.
2.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3.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기 3천여년 전부터 ‘신(=시나이)’라 불렸다.
4.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기원후 527년 순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조된 성지일 뿐이다.
5.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11개월 5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6. 애굽 왕자로서 애굽 땅을 잘 아는 모세가 애굽 군인들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리는 없다.
7. 시나이 반도는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다 48km나 떨어져 있어 성경과 다르다.
8.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 앞에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앉을만한 광야가 없다.

진짜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8가지 이유

1.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땅은, 예로부터 미디안 땅이라고 불려 왔다.
2. 하나님은 구약 식대부터 이미 아라비아와 미디안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구분해 말씀하신다.
3. 애굽 왕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곳이 성경에 시나이가 아닌 미디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4.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살고 있는 미디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5. 홍해를 건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물을 찾아 사흘 길을 헤매다가 마라의 뜬 물을 달게 마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6.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분명히 아라비아 사람이요 미디안 땅에 산다고 했지, 시나이에 산다고 한 적이 없다.
7.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다고 했는데, 아말렉족은 미디안 광야 인근에 살던 아라비아인이다.
8. 사도 바울은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떨기나무 바로 보기를 위한 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펼쳐보고자 한다.

2. 수르 광야 해석은 억측

수르 광야(이집트 지명으로는 에담 광야)의 위치는 이집트 역사 기록에 엄연히 구체적으로 존재

하고 있지만 저자는 그 자리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집트 역사 기록을 통해 보면 에담은 바닷가를 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바닷가는 홍해변에 자리하고 있다. 본토 이집트 본토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변은 '바닷가'로 불려졌을 것이다.

저자나 이국운 교수는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르 광야는 미디안 땅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족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 아말렉 족은 미디안 광야 인근에 살던 아라비아인들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에 있던 미디안 땅에서 광야생활을 지냈음이 분명"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은 그곳에 있는 라오즈산이 틀림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민 25:15]에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고 적고 있다. 저자는 물론이고 이국운 교수조차 '수르 광야가 수르 종족이 살고 있던 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디안 족장들

이나 왕들, 미디안 사람들에 얽힌 이야기는 출애굽 여정 후반부에도 등장한다. 바알브올 사건에도 미디안 사람들은 여지없이 등장한다.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 미디안 땅일까? 미디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 모압 평지에서 라오즈 산 주변 지역까지 가려면 통상 3주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민 31:8] 본문을 보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가서 그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요르단의 역사는 물론이고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시새산은 라오즈산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민수기 31:1-12절을 옮겨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와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일천인씩을 싸움에 보낼찌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일천인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일만 이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일천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것, 노략한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또 다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창 25:18]이다. "그(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숲'은 수르이다. 한글 개역 성경 번역에 '숲'로 표기했을 뿐이다.

여기까지는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한글 개역 성경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면서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자가 수르 광야의 위치 설정을 위해 사용한 본문에 나오는 '수르'라는 단어와 광야 지명 '수르'가 전혀 다른 단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인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민수기 25장 15절에 등장하는 수르는 영어 표기로 Zur,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쥘루에 해당한다. 영어 표기 Shur, 히브리어 발음 슈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 본문에 대한 저자의 완전한 오해와 상상력이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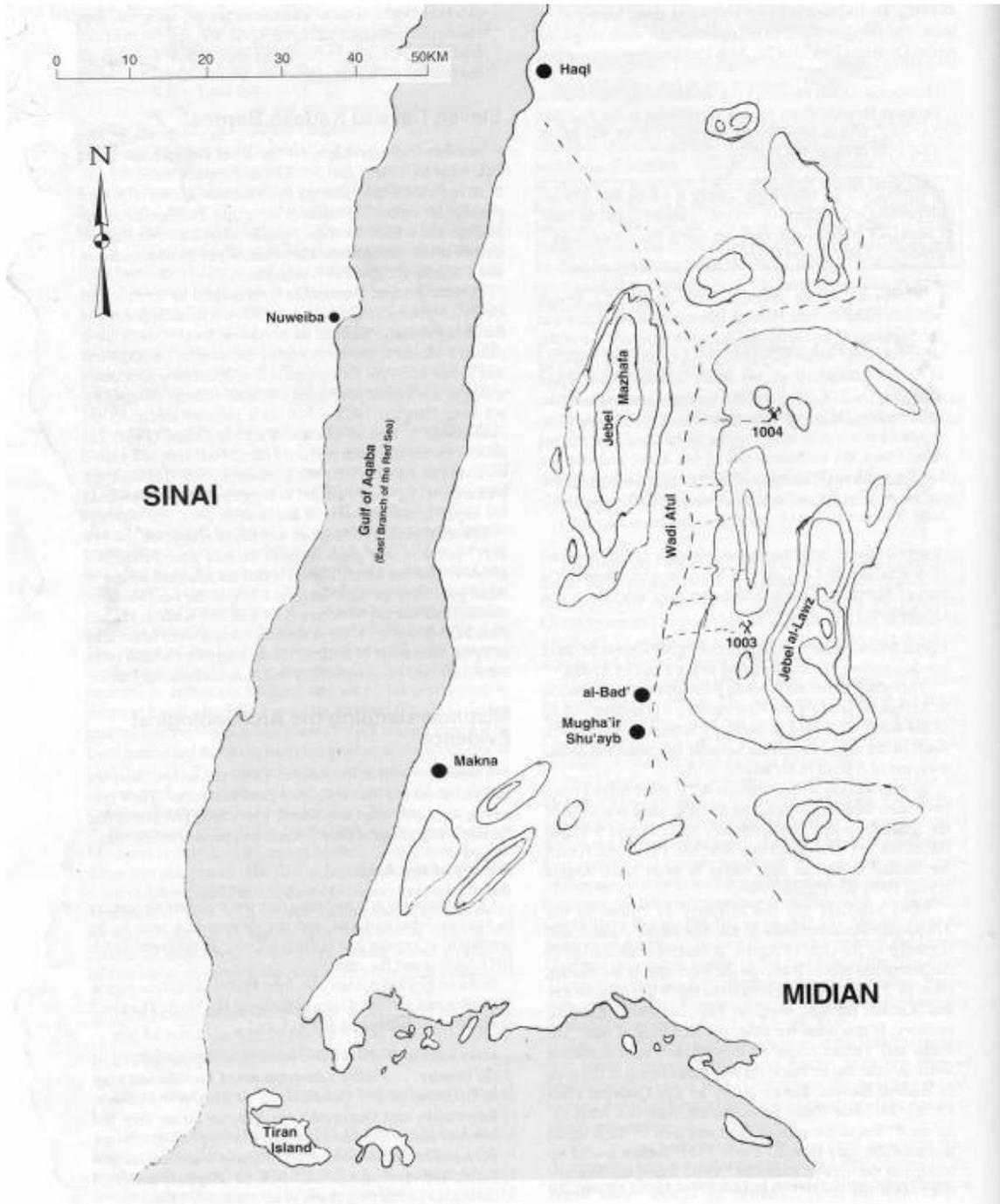
**דַּמְרֵי בֶן סוּרָא וְשֵׂיֵא בֵּית אָב לְשִׁמְעוֹנִי וְשֵׁם הָאֵשֶׁה
הַמִּכָּה הַמְדִינָה כְּבִי בֵּת צוּר רֵאשִׁי אֲמוֹת בֵּית
אָב בְּמִדְיָן הוּא**

이렇게 길게 수르 광야의 위치에 얽힌 저자의 주장을 짚어본 것은 이 책 곳곳에서 이 같은 식의 억측이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이 보이기 때문이다.

3. 미디안 땅 다시 정의하기

뉴스엔조이에 실린 이국운 교수의 서평을 따라 가면서 이야기를 열어가고자 한다. 이국운 교수가 지적했듯이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자 나름대로 성경상의 여러 기록들을 애써서 대조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가 탐사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땅은 미디안 땅으로 불려왔다. 그 주장에 별달리 이견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디안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을 도망쳐 피난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며, 따라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곳이다. 라오즈산 근처에 바드(필자 주, 지명 이름을 보면 알바드라고 적혀있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바드 옆에 이드로(필자 주, 현지 지명에 따르면 '무가이야르 슈아이브' 즉 슈아이브의 작은 동굴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다. 슈아이브는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지칭한다.) 라는 지명이 있으며 그곳에는 실제로 이드로의 집으로 알려진 고고학적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필자 주,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드로는 요르단 암만 북서쪽 싹트 지방의 한 골짜기인 슈아이브 골짜기에서 죽었다. 그의 무덤이 있다는 곳에 슈아이브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특별히 모세는 이곳에서 이드로를 도와 양 무리를 치다가 호렘산에 이르러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출애굽기에서 호렘산은 하나님의 산, 즉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시나이 반도가 아닌 미디안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내산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에 있다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시내산에 얽힌 성경의 다양한 언급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로 이 주장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무리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디안 땅(사우디 아라비아)의 시내산 설, 특히 <떨기나무>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에는 몇 가지 궁금함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 갈라디아서 4:25절을 바탕으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2:15, 19, 3:8, 10, 12를 바탕으로 '시내산은 이집트 밖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 출애굽기 4:19-25절을 근거로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3:1-2를 근거로 '시내산은 모세와 이드로가 살고 있던 땅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 전제 아래서 상충되는 성경 본문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재해석하지만 또 다른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곤 한다. 그리고 출애굽 관련 성경 기록을 지나칠 정도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라우즈산 시내산 설을 주장하면서 이슬람 전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슬람 전승이라고 하여 애써서 무시할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그 전승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할 이유가 많다. 이 글은 짧게 <떨기나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관점 몇 가지를 성경과 이집트 역사, 지정학적인 해석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었다는 전제에 대한 평가이다. 미디안 땅에 얽힌 해석을 시도 해본다.

3-1.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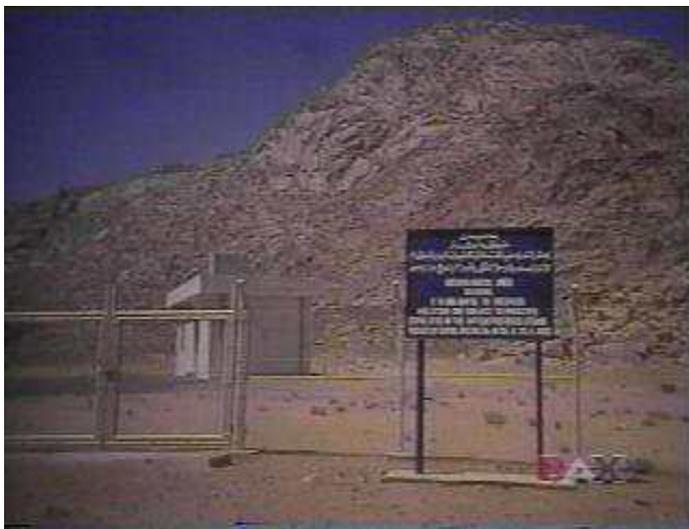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떨기나무> 이 책은 말하기를 시내산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부분이었던 미디안 땅에 있었다고 한다. 미디안 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 판 시내산 자발 알라우즈가 포함된 지역을 일컫는 것은 사실이다. 즉 사우디 아라비아의 서부 해안 지역 주변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자발 알라우즈는 사우디 아라비아 서부(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이다. 그렇다고 하여 시내산이 자발 알라우즈일수는 없다. 성경에서 시내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산, 그것도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강

립하셨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관행일 뿐이다.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 본문은 출애굽기 3:1이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미디안이라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년간 양무리를 쳤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이다.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시내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미디안 땅 경계 밖에 있었다. 그런 판단은 지리적인 거리감 평



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집트의 동부 델타 지역에 자리한 고센 땅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 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직선거리 개념은 이 평가를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당시의 도로와 이동 수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 당시의 여행 방식을 고려하면 낙타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한 달 안팎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낙타는 혼한 것도 아니었고 싸구려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던 이드로를 찾는다. 그의 허락을 받아 이집트로 갈 것을 결정한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재회(출 4:27)한다. 저자의 논리대로 라면 아론은 이집트 본토 고센 땅을 떠나 사우디 아라비아 서부 미디안 땅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했어야 했다. 그 당시 여행 거리로 치면 최소한 한 달 안팎이나 걸릴 거리이다. 어색하기 그지없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머물 때의 일을 보자. 출애굽기 18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다. 27절을 보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시내산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 가니라"고 적고 있다. 이드로는 시내산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수기 10장에서 또 다른 본문을 만날 수 있다. 29절에서 32절 사이에 등장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면 이 본문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살았다는 모세가 어떻게 하여 이집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시절은 골짜기나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이들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런 궁금함에 대하여 저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

3-2.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에 속해있지 않았다.

"... 지금까지 시내산이라고 부를 만한 산을 찾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그런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내산의 위치를 둘러싸고 6-7가지 장소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통적인 시내산도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데 하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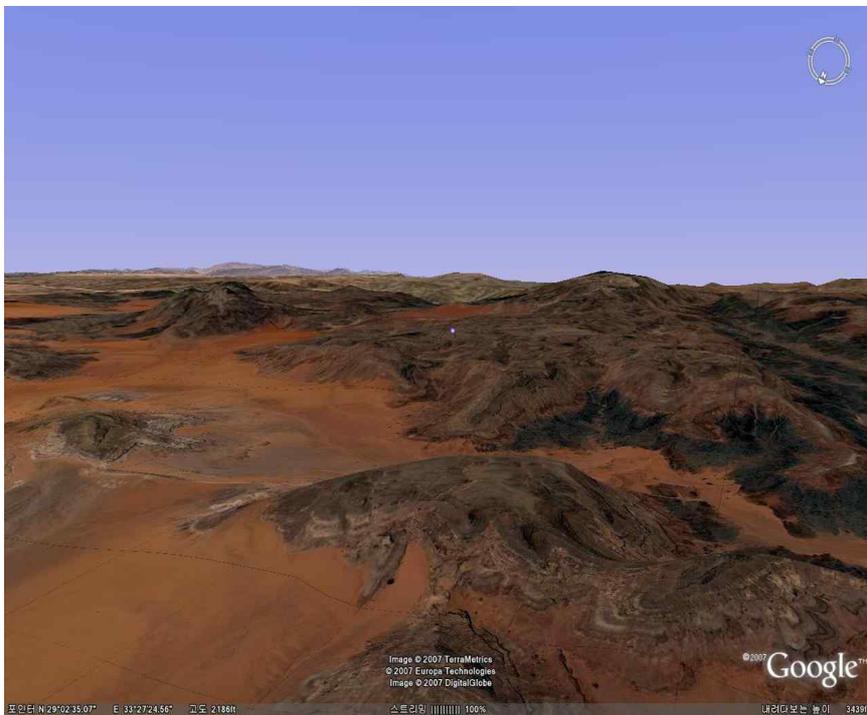
"시나이반도는 1967년 이스라엘에 의해 침공 당하기 전까지는 외부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이다."거나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시내산은 예전에 애굽 땅이었다. ..." 는 저자의 시각은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영토 안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성경적이거나 역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나 시내산이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500여년 전 출애굽 당시 시내산이나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에 속하지 않았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곳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향오를 지어 나올 때'로 언급한다. 이미 이집트 땅을 벗어났다고 적고 있는 것이다. (출 13:18-20)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몰려 살던 고센 땅은 이집트 본토의 동쪽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집트의 전방 부대 므들들은 이집트의 동쪽 경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집트 제국에서 종종 사용하던 구리광산이나 터키석 광산은 이집트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집트 경계 밖 광야에 있었다고 이집트 문헌들은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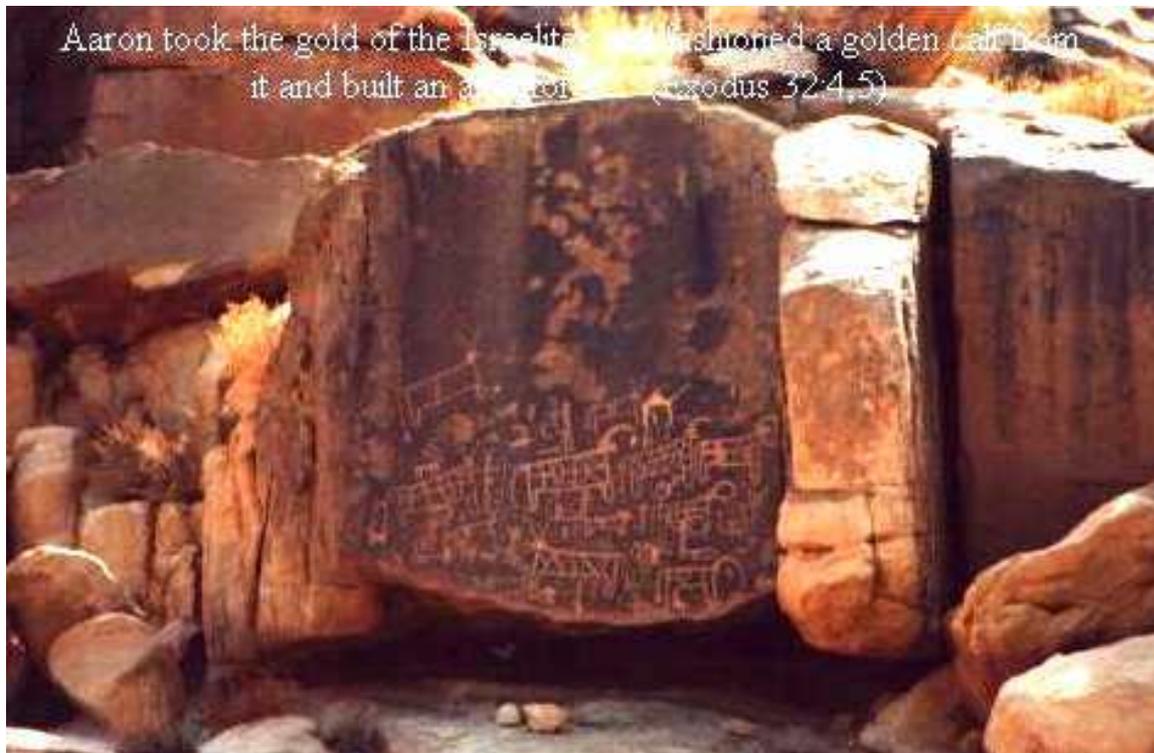
저자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서의 구리광산이나 터키석 채광이 연중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세라비트 엘카렘이다. 이곳에서의 채광작업은 주기적이었고, 대개의 경우 1월부터 4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출애굽 시점이 4월 초에 일어난 것을 고려하고 출애굽 여정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의 시나이 반도는 진공상태였다. 이집트의 무력이나 통제력이 미치지 않던 시기였던 셈이다. 이집트 제국은 광산 지역에 수비대를 상주시키는 대신에 거나 원정부대를 파견했을 뿐이다. 메렌프타 왕 시대에 단지 한번 주둔군을 파견한 것이 전부였다.



시나이 반도에 요새에 수비대를 주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비대는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것을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므들로

불렀다. 므딕들은 이집트 제국이 원정에 나설 때 전진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외부 적의 침입이나 유입되는 난민들을 통제하는 통제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요새들은 주로 시나이 반도 북부의 호루스의 길로 불리는 도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요새성들의 존재 파악을 통해 이집트 본토와 가나안 땅 사이의 중개 도시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경(출 13:17)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묘사하고 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본문 역시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 경계 밖이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엘림과 신 광야를 지나 시내광야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떠날 때까지 기간은 정확히 11개월 5일이다.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 11개월 동안 애굽 땅인 시나이반도를 떠돌아 다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곳은 지금의 시내산이 아닌 다른 곳에 시내산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 군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집트의 영토는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고려하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이집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이집트 땅의 경계가 최대 확장된 경우에도 이집트 남서부의 광산 지역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때가 메렌프타 시대였을 것이다. 이 같은 역사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동쪽

홍해인 아카바 만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홍해가 수에즈 만 쪽이 아니라 아카바만이라는 주장도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 아울러 고센을 떠나 이어지는 출애굽 여정의 일반적인 맥락을 도외시하는 인상이 짙다. 이것은 다음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3-3. 시내산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근거로서 갈라디아 4:25는 적절하지 않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본문을 가지고 시내산이 아라비아 그것도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주장을 펼수는 없다. 출애굽 당시 아라비아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랍이라는 종족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 용어는 그보다 나중인 왕조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왕상 10:15; 대하 9:14; 17:11; 21:16; 22:1; 26:7; 느 2:19; 4:7; 6:1; 사 13:20; 21:13; 렘 3:2; 25:24; 겔 27:21).

3-3-1. 바울 시대의 아라비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모세 당시의 지명을 연상하고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 당시의 지명을 토대로 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바울 시대 전후하여 아라비아란 지명이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대의 유명한 여행자인 스트라보(주전 64 ~ 기원후 25)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그는 그리스에서 본도(Pontus)까지 여행을 했다. 그는 아라비아의 동쪽 경계를 페르시아만(걸프만)으로 서쪽 경계는 나일강 동편 지역으로 적고 있다. 스트라보는 아라비아 지역을 나일강 동편에서 시작한다. 시나이반도는 물론 아라비아 반도 전체 지역으로 이해했다.

이보다 앞선 헤로도투스는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한 그의 책에서 나일강 동편 지역과 지중해부터 홍해까지의 지역을 아라비아로 묘사했다. 그의 페르시아 전쟁기에서 "이집트에서 멀지 않은 아라비아"를 언급하고 있다.

3-3-2. 70인역

아울러 70인역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70인역에서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나온다. 고센

땅을 묘사하면서 아라비아의 고센(창 45:10, 46:34)으로 번역했다.

창세기 45:10, και κατοικησεις εν γη Γεσεμ Αραβιας και εση εγγυς μου συ και οι υιοι σου και οι υιοι των υιων σου τα προβατα σου και αι βοες σου και οσα σοι εστιν

창세기 46:34 ερειτε ανδρες κτηνοτροφοι εσμεν οι παιδες σου εκ παιδος εως του νυν και ημεις και οι πατερες ημων ινα κατοικησητε εν γη Γεσεμ Αραβια βδελυγμα χαρ εστιν Αιγυπτιοις πας ποιμην προβατων

이것은 당시의 지명 쓰임새를 반영한 것이었다. 고센 땅이 분명히 이집트 영토(창 37:6, 27, 출 9:28)였음을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라비아 땅은 고센땅의 또다른 별명으로도 불린 것이다. 바울은 1세기의 지명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다. 그의 시대에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의 일부였기에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결국 바울의 언급을 바탕으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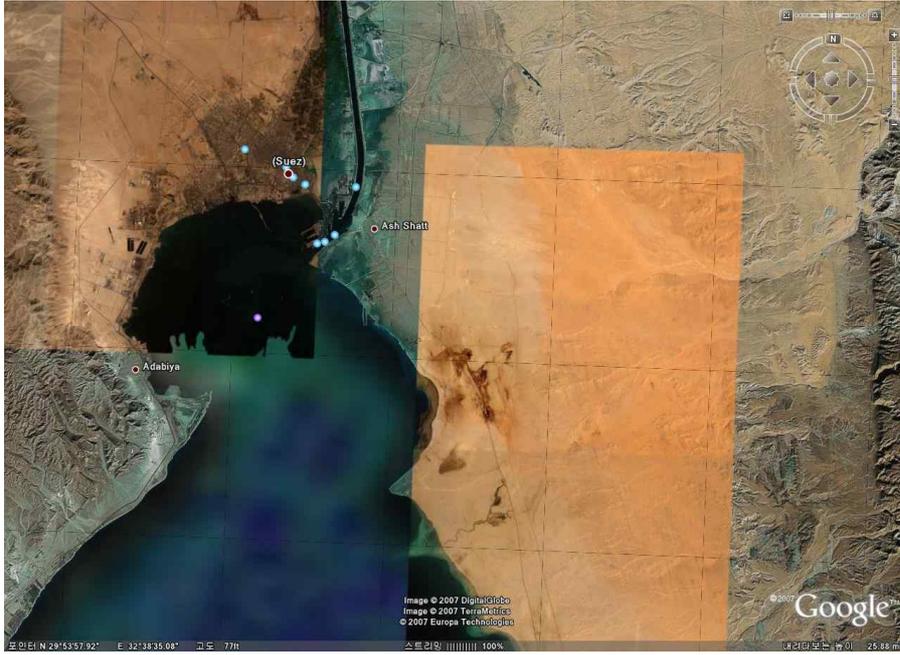
4. '홍해 건너기' 다시 정의하기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다. 고센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는 결코 홍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 여기서부터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홍해는 수심이 1천2백미터나 된다.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긴 깊숙한 절벽의 바다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그곳을 갈랐다고 해도 건널 수 없다. 1천2백미터나 되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다시 그 건너편 절벽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 홍해 기사를 읽고 그 현장을 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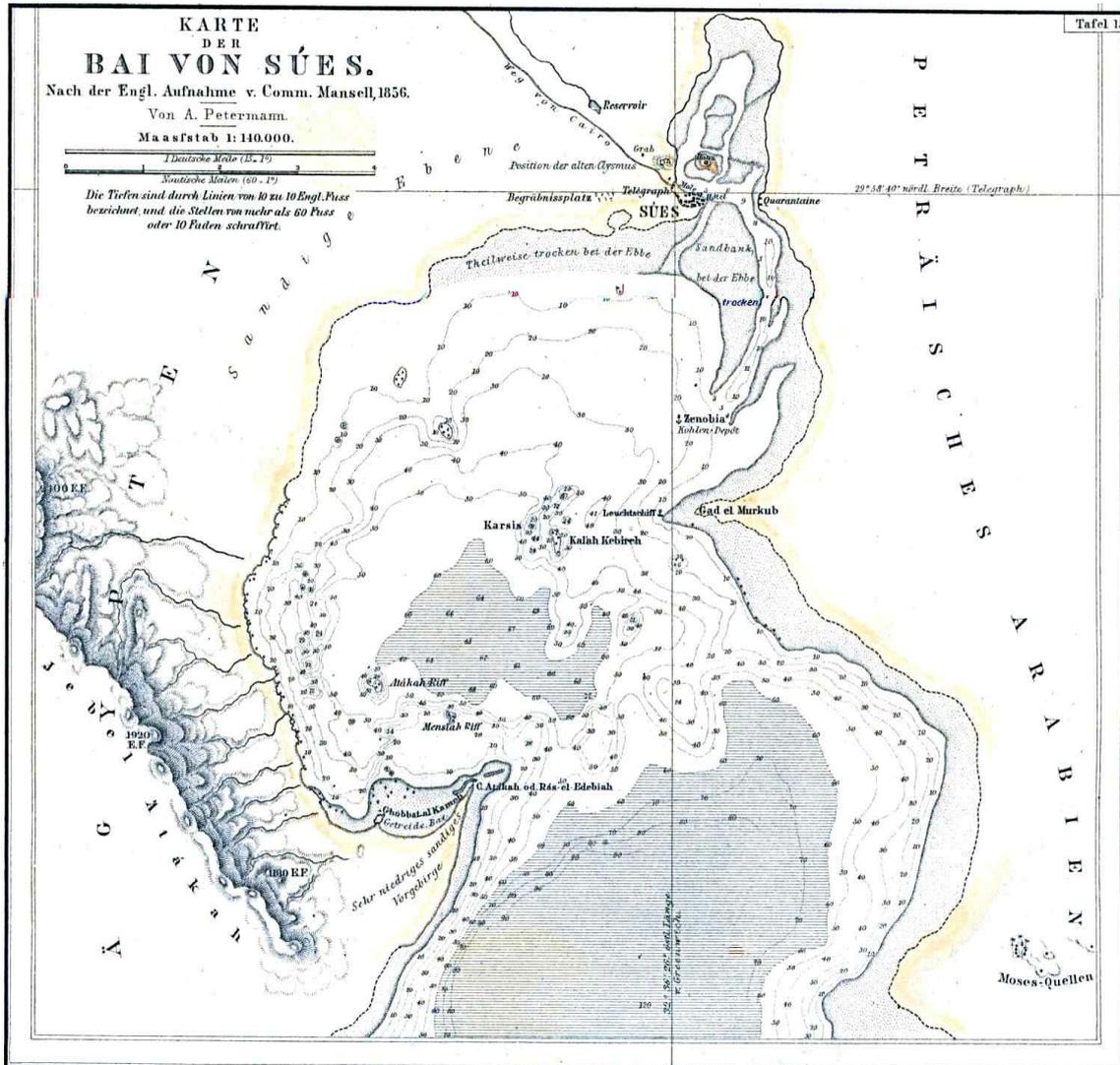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한 곳에 바닷길을 내셨다. 그 바닷길은 솔로몬이 자신의 조상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기념해서 양편에 기념기둥을 세웠다. 그 곳에는 유일하게 삼각주처럼 모래해변이 12킬로미터로 펼쳐져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을 사할 길을 걸어 이곳에 도착하도록 했다. 이곳의 바다 수심은 120미터로 경사 6도의 완만한 유일한 바닷길이다. 하나님은 이곳의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과 확신과는 달리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 따른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 고센에서 전통적인 시내산까지의 여정에도 분명하게 홍해는 존재한다. 오늘날 수에즈만이라고 부르는 홍해가 그것이다. 동쪽에 아카바만이 있다면 서쪽에는 수에즈만이 있다. 저자가 '홍해도 없었'기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저자의 주



장을 바탕으로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홍해는 '수심이 1천 2백미터'나 되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긴 깊숙한 절벽의 바다가 생겼다'는 저자의 주장은 이상스럽다. 홍해의 평균 수심이 490미터 정도이고, 최대 수심이 2850미터에 이를

뿐이다. 물론 이 수심은 홍해 분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수에즈만이나 아카바만의 홍해 수심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수에즈 만은 전체 길이가 314킬로미터 이고 이중 수에즈운하의 길이는 162.5킬로미터 정도이다. 운하를 제외하고서도 151.5킬로미터 정도는 순수



한 홍해이다. 수에즈 만의 경우 깊은 곳의 평균 수심이 200미터에 불과하다. 그것도 내륙에 가까운 곳은 평균 수심 50미터 안팎에 불과하다.



누웨이바에 형성된 삼각주는 누웨이바로 이어지는 골짜기 '와디 와티르'를 통해 빗물이 실어온 모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누웨이바 삼각주 형성의 지리학적인 연대 측정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5.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다시 읽기

<떨기나무> 저자는 지나칠 정도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을 중심으로 출애굽 여정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거리개념이나 계절, 이동 시간에 무관심해 보인다. 사실 성지 순례를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무관심하게 특정 장소를 순례하는 것도 현실이다. 성지순례자들에게서 성경의 땅의 시공간 속에 들어서보는 그런 진지한 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출애굽 당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아주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범한 이들은 걸어서 이동하곤 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만이 낙타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다. 걸어서 가건 낙타를 타고 가건 일반적인 경우 하루 이동 거리를 20킬로미터나 많아야 30킬로미터로 계산하곤 했다. 게다가 날씨와 기후,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고센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누웨이바까지 '사할 길을 걸어' 이곳에 도착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억지스런 추론일 뿐이다.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웨이바 홍해가 까지 400킬로미터를 걸어서 사할 만에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4-5일은 족히 걸렸을 거리이다. 물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탔을 가능성은 없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나귀,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테스바네아까지 열하룻 길(신 1:2)이어야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에서 가테스바네아까지는 한 달은 족히 잡아야 할 멀고 험한 길이다. 가테스 바네아의 위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 가까운 쪽, 오늘날의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에인 게데스 지역이나 그곳에서 10여킬로미터 떨어진 에인 꾸테이라트를 지목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페트라 인접한 곳으로 언급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경계 설명과 배치된다. 민수기 34장을 보라. 특별히 남쪽 경계를 묘사하면서 "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서 아그랍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에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있다(민 34:3, 4)고 적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가 페트라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면 에돔 왕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이스라엘 땅에 포함시키는 성경해석의 오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겔 47:19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쪽경계가 가데스라는 언급이 있다. 이스라엘 왕국역사상 이스라엘 남쪽 경계가 사우디의 미디안지역까지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저자는 이스라엘 영토가 요르단의 남부 에돔지역은 물론 사우디 북서 해안 지역을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성경 민 20:16에는 가데스가 에돔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가데스가 만약에 저자의 주장대로 알라우즈산 아래에 있었다면 에돔의 영역이 미디안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또다른 주장이 되는 것도 허점이다. 민13:22에 보면 점탐꾼이 가데스에서 하맛 어귀까지 정탐하는데 40일(25절)이 걸렸다고 하는데 알라오즈산 옆의 가데스에서 정탐했다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성경상의 다메섹) 북쪽 하맛 근처까지 가는데만도 족히 40일은 걸렸을 것이다.

6. 이 밖에도 평가하여야 할 것들은 많다.

"'시내산'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떨기나무> 읽기를 권하는 이국운 교수는 <떨기나무>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성경과 대조하면서 적어도 무사산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 아님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고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디안 땅의 라오즈산이 성경상의 시내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확신과 깨달음을 뭐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이 힘을 얻기에는 그 근거 자료나 해석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는 <떨기나무>의 저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영감을 준 이들의 연구 자료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자료들도 많다. 또한 시내산 위치를 둘러싼 논쟁이 어제 오늘의 아님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눈감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기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라오즈 산에 대한 정보도 희귀한 정보는 아니었다.

시나이 반도는 작지 않다. 그런 까닭에 '그 작은 시나이 반도에서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목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저들로부터 도망쳐 나온 민족으로서 단 한 번도 이집트의 공격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떠돌아다닐 수 있었을까?'하는 이국운 교수의 궁금함도 사실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다. 그것은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영토가 아니었다는 점, 시나이 반도에 상주하는 이집트 파견 대도 없었다는 점, 일부 지역에 주기적인 파견대를 보냈지만 그 지역이 시나이 반도 남단의 세라비트 엘카템 같은 일부 광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국운 교수의 지적처럼 역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진리에 대한 더 깊

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떨기나무>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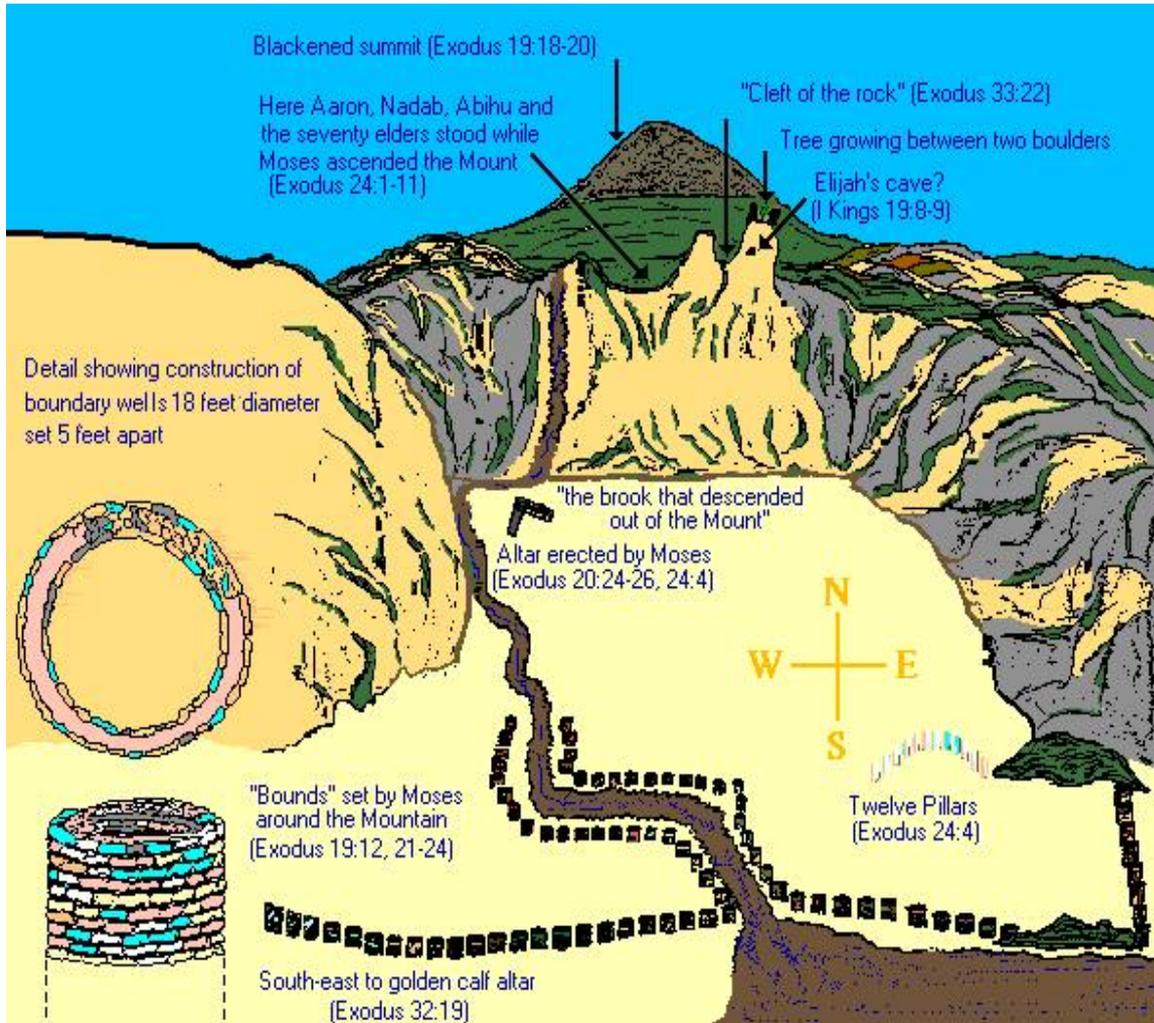


로 잡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것은 없다. 뒤집어 보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국운 교수는 출애굽 시기를 두고 크게 일고 있는 15세기설과 13세기 설이 라우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이미 예견된 실패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떨기나무>의 저자가 생각하는 출애굽의 연대는 무엇이며,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지 않은 자료들의 연대확정은 어떤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 물어야 한다. 출애굽 연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역사적 근거로 출애굽의 역사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다. 그 안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같은 출애굽 과정에 등장하는 종족과 나라와 민족들을 역사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규명하려는 노력인 것도 사실이다. 이미 확인되고 규명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렇지만 <떨기나무>의 저자나 그에게 영향을 준 이들은 시내산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미 규명되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조차 새로 짜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그의 탐험은 주로 이드로의 집 유적지가 있는 바드와 라오즈산이 있는 타북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을 탐사하면서 저자는 모세의 돌제단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수많은 끈 풀린 샌들 암각화들과 금송아지 제단,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프리바 반석과 12지파의 12돌과 만나를 찢었던 멧돌과 모세의 성막에서 쓰던 일곱 가지의 촛대가 그려진 메노라의 바위그림 등 출애굽의 역사를 생생하게 조명해주는 많은 자료들을 촬영하여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특별히 저자는 라오즈산 일대의 와디 무사 등을 돌아보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쓴물을 경험해야 했던 마라와 열두 샘물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던 엘림, 프리바, 가데스 바네아 등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과 그 지역들의 특색에 일치하는 장소들을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라오즈산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시나이 반도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누웨이바와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해안가인 하골에 각각 솔로몬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곳이 홍해를 건너 지점으로 제시하였다..."

이국운 교수의 서평에서 인용된 위의 내용들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다루었으면 한다. 그것은 저자가 나름대로의 고고학 발굴 결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떨기나무 평가는 이번 글의 목표가 아니다.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내산이 연기로 가득했다는 증거 사진? -> 과학적 근거가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금송아지 단이 암벽화? -> 그 그림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이집트 풍의 소 그림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그림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그 암벽화가 이집트 풍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드로와 모세의 동굴 이야기의 출처와 근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저자가 근거로 자주 사용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전승은 이슬람전승에 바탕을 둔 것이다.

깨진 반석이나 시내산 주변에 울타리를 친 흔적 같은 이야기는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다음기회에 다루었으면 하는 저자의 성경 인용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출애굽기 3:1을 근거로 '불타는 떨기나무는 시내산 뒤편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20:24-26절을 근거로 '시내산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신명기 9:21절을 바탕으로 '시내산은 시내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32:17-19를 근거로 "금송아지 제단은 시내산을 바라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19:23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산 사면에 세운 만든 지경(지계석)이 있었다고 말한다.
- 시내산에는 각 지파를 따라 세운 열 두 기둥이 있었다.
- 열왕기상 19:8-9절을 바탕으로 시내산에는 엘리야가 숨을 만한 동굴이 있었다고 말한다.
- 시내산은 엄청 높은 산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12:37을 바탕으로 시내산 주변에는 3 백만 명 이상이 머물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출애굽기 19:17-18을 근거로 그 야영지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그곳에는 오랫동안 목축을 할 만한 광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맺는 글

<떨기나무>의 저자가 경험하고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출애굽의 현장인 중근동의 역사 해석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 사건은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디안 땅에서만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집트 제국과 그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에돔 왕국은 물론 모압 왕국과 암몬 왕국, 아모리 왕국과 블레셋, 아말렉 족속 같은 수많은 인적 물적 요건들이 뒤엉켜진 세계 그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역사 해석을 새롭게 시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비역사화 시키는 그런 허술함이 느껴진다.

<떨기나무>로 인해 시공간 속에서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의 기록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으로 풀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것에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다.

<떨기나무>로 인해 그동안의 눈감고 과거 따라 아니 과거의 전통 따라 가는 순례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러한가'하여 역사 현장을 밟으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재음미하는 성지탐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도 신대원 성지연구소 프로그램이나 목회자 프로그램은 보다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면 좋겠다.